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2024년 4월 4일(목) 10:30 ~ 12:00

총회회관

- [기조발제]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안인섭 교수)
- [연구주제 1] 총회 목회자 수급의 현황과 해결 방향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이종민 교수)
- [연구주제 2] 목회(사역)자 수급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 신학생을 중심으로
(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주종훈 교수)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목차

컨퍼런스 순서

[기조발제]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7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안인섭 교수)
[연구주제 1]	총회 목회자 수급의 현황과 해결 방향.....35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이종민 교수)
[연구주제 2]	목회(사역)자 수급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 신학생을 중심으로.....69 (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주종훈 교수)
[자료 1]	하나님의 종에 비추어 본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85 (총신대 신대원 신약신학 강대훈 교수)
[자료 2]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목회자 교육의 중요성.....101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김효남 교수)

컨퍼런스 순서

[1부 - 예배]

인도 : 서기 조상철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기 도		회계 안수연 장로
성경봉독	시편 144:12-15	서기 조상철 목사
설 교	기도자와 계획자	총회장 오정호 목사
광 고		총무 오성환 목사
축 도		총회장 오정호 목사

■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안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 성경본문 시편 144:12-15

-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과 같으며
-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 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2부 - 컨퍼런스]

진행 : 부서기 예동열 목사

시간	순서 및 담당자
기도 / 신현수 목사	
11:00~11:20(20분)	기조발제 1 :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 안인섭 교수
11:20~11:40(20분)	연구주제 1 : 총회 목회자 수급의 현황과 해결 방향 / 이종민 교수
11:40~12:00(20분)	연구주제 2 : 목회(사역)자 수급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 신학생을 중심으로 / 주종훈 교수
마침기도 / 김희동 목사	

[광고]

1.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의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를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 예배 설교를 맡아주신 총회장 오정호 목사님, 강의와 기도 그리고 축도 등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책자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발제 후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08회기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강사

설 교



총회장 오정호 목사

기조발제



안인섭 교수

연구주제 1



이종민 교수

연구주제 2



주종훈 교수

임원

위원장



장○○ 목사

부위원장



이○○ 목사

서 기



조상철 목사

회 계



안수연 장로

총 무



오성환 목사

부서기



예동열 목사

부총무



강○○ 목사

위 원



신현수 목사

위 원



김희동 목사

교회여
일어나라!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기조발제]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안인섭 교수)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안인섭 교수

(총신대 신대원,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

I. 들어가는 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현실 역사 속에서 살고 있기때문에, 목회자 수급 문제는 역사적 교회가 늘 직면하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교회는 이 문제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 왔으며, 그 성공과 실패는 교회사를 통해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목회자 수급의 문제는 보편성(Univers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이라는 이중적인 문맥에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회자 수급 문제는 먼저 성경과 개혁신학 그리고 한국교회보다 먼저 이 사안을 경험해 왔던 개혁교회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보편적인 원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 수급 문제는 21세기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치명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교회의 목회자 수급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점증하는 현대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과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 양극화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긴급한 주제가 되었다.

2023년 현재 총인구가 5,143만명(2023년 2월 주민등록인구기준)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개신교 비율을 15%로 본다면 개신교 인구는 약 77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가나안 성도는 2023년에 29.3%로 지난 6년간 6%가 증가했다. 실제 교회 출석자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545만명이 고 가나안 성도는 226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¹⁾

이런 문맥에서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목회자수급정책준비팀(팀장 이종석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교단의 현안인 목회자 수급을 연구하는 것은 교단의 미래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발제는 특히 칼빈의 제네바²⁾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간 화란개혁교회에 대해서 고찰하되³⁾ 엠턴 총회를 주목할 것이다.⁴⁾ 또한 화란개혁교회의 정신을 이어간 미국의 개혁교회(CRC)⁵⁾와 미국의 장로교회(PCA)⁶⁾는 이 목회자 수급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II. 연구 진행의 경과와 연구의 구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총회는 163개 노회와 11,920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역자 수는 목사 24,926명, 강도사 666명, 그리고 전도사 10,643명이며, 성도 수는 평신도 2,351,896명, 장로 22,33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 목회자 수급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2023년 11월 9일에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동으로 연구가 착수되었으며 11월 16일에 미래정책위부 위원장과 구체적 연구를 위한 미팅이 있었다.

이후 12월 1일에 목회자 수급 연구를 위해 총신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팀이 구성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초 발제로서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이란 제목으로 안인섭 교수가 연구와 발표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총회 목회자 수급의 현황과 해결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종민 교수가 질적, 양적 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주중훈 교수는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목회자 수급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 외에 오늘 발표를 하지는 않지만 성경신학적 차원에서 진행된 목회자 수급에 대한 연구(강대훈 교수)와 역사적-신학적 측면에서 연구된 목사직에 대한 장로교회의 역사적 이해(김효남 교수) 등이 자료집에 제시된다.

2023년 12월 15일에 총회 목회자 수급정책을 위한 통계자료를 위한 설문을 요청하는 1차 공문이

- 1)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 50-51.
- 2) 칼빈의 제네바 교회규정은 1541년에 처음 나온 후에 계속해서 작은 수정을 거쳤다가 칼빈 생애 중에는 1561년에 마지막으로 출판되었다. I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Cunitz, E. Reuss, Vol. 10a (Brunswick: C. A. Schwetschke, 1871), 91-93. 이하 CO. 10a.로 표기함.
- 3) 화란개혁교회가 성립되어 발전된 역사에 대해서는 출처를 보시오. 안인섭, 『종교개혁사연구』 (용인: 킹덤북스, 2022), 301-452.; 안인섭, 『한 권으로 읽는 교회사』 (화성: GMS, 2022), 296-315.
- 4) 화란개혁교회의 최초의 총회인 엠턴총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을 보시오. *Acta van de Nederlandsche Synoden der sestiende eeuw*. Verzameld en uitgegeven door F.L. Rutgers. Tweede onveranderde druk. Dordrecht: Van Den Tol, 1980.
- 5) 미국개혁교회(CRC)의 교회규정 최신판(2022년)은 다음을 보시오.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 2022* (교회헌법과 보칙 2022)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22).
- 6) 미국장로교회(PCA)의 교회규정 최신판(2023년)은 다음을 보시오.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회헌법 미국장로교) (Lawrenceville, Georgia: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023).

전국 교회 담임목사에게 발송되었다. 2024년 1월 2일 2차 공문과 2월 23일 3차 공문이 전국 163개 노회에 발송되었으며 이때 개방형 설문지가 배포되어 목회자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노회 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⁷⁾

III. 칼빈의 제네바와 화란개혁교회

1.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령(1561)과 목사직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모델로 삼는 것은 칼빈의 제네바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1541년에 시작해서 1561년에 최종 확정된 “교회규정”을 통해서 제네바 교회와 개혁주의 목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⁸⁾ 이 교회규정은 아직은 총회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해 제정하신 네 종류의 직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목사, 박사(교사), 장로, 집사의 4중직을 확정하고 있다. 이때 칼빈은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다.

칼빈은 목사의 자격 검증 위해서 (1) 성경에 대한 바르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리, 특히 교리문답서를 지키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 둘째는 목회자는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책망할 것 없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은 교리의 순전함과 일치, 보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성경연구회”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게으르면 경고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리상 상이점이 있을 경우 목회자들은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최초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 (엠덴 총회, 1571)

1) 역사적 배경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1559)에 이어서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로 1571년 엠덴 총회(Synod of Emden)에서 총회를 조직했다.⁹⁾ 화란개혁교회는 직접적으로 칼빈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칼빈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직접 신학 교육을 받았던 칼빈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개혁교회를 세워나갔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조직 이후 위그노 전쟁(1562-1598)을 거쳐 낭트칙령이 폐지(1685)된 이후 실제적으로 프랑스 역사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없었다. 그러나 피난민의 총회였던 엠덴 총회를 통해서 형성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갔다.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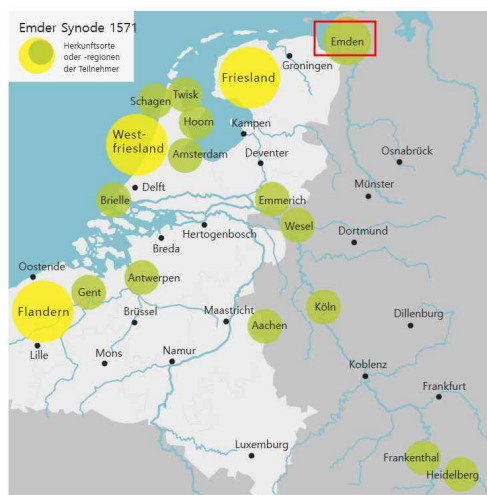
7) 목회자 정년 문제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양현표 교수의 연구와 이희성 교수의 연구가 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양현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목사 정년 제도에 관한 연구: 목사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개혁논총』 54 (2020): 323-356.; 이희성, “목회자 정년 규정 비교 연구: 국내외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90권 2집 (2023): 91-116.

8) CO. 10a. 91-93.

9) 안인섭, 『종교개혁사연구』, 395-405.

경건주의의 흐름으로 통합되어, 19세기와 20세기 초 바빙크와 카이퍼의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강력한 개혁신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엠던 총회는 개혁신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총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화란개혁신교회의 최초의 엠던 총회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령(1541,1561)과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파리 총회의 교회 규칙서(Discipline ecclesiastique, 1559년)를 토대로 1571년 10월 4일부터 13일 사이에 네덜란드와 경계선에 있는 독일의 엠던에서 이전에 무기고로 사용되던 건물에서 개최되었다. 약 29명이 네덜란드 교회 대표자들이 정식으로 초청되어 참가했던 이 총회를 통해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는 처음으로 장로교회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1571년 최초의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 국경 지역 독일의 엠던〉

이 총회는 스페인의 박해 아래서 큰 고난을 겪던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들이 더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로 다른 권위 구조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 공통의 교회 질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북부를 포함했던 당시의 네덜란드 지역은, 크게 보아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쪽과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쪽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의 필립 2세의 가혹한 박해와 화형 집행에 의해서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는 본토 지역에서 지하교회의 형태(십자가 밑의 교회)가 되거나, 국외 유럽 지역에서 피난민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극도의 불안하고 산만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의 모든 개혁신교회들은 하나의 몸으로 결속될 필요가 긴밀하게 요청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은 독일 지역의 피난민 교회 공동체들 즉 베셀(Wesel), 아헨(Aachen), 쾰른(Cologne), 에메릭(Emmerik), 엠던(Emden), 프랑켄탈(Frankenthal), 헨트(Ghent), 앤트워프(Antwerp), 웨스터크바르티어(네덜란드의 최서단) 등과 네덜란드 본토의 박해 받는 지하 교회 대표단들로 구성되었다.

2) 엠던 총회의 내용과 의미

엠던 총회의 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4명의 목사와 5명의 장로, 총 29명의 대표자가 서명했다. 이 엠던 총회의 문서는 오늘날까지 교회, 국가 및 사회와 관련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인 일반론(Generalia)에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인 특별론(Particularia)은 회중들이 총회에 던졌던 질문들과 특별 요청에 대한 답변들이다. 세 번째 부분에는 총회의 순서와 참가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엠던 총회 정신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자기 책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회중이다. 또한 엠던 총회의 중요한 정신은 위계와 권력에 기초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다. 성령에 의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님,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엠던 총회의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공생”이 장로교와 총회 조직으로 녹아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엠던 총회가 현대 교회에도 전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된다.

엠던 총회 정신의 중심점은 회중의 독립성과 회중들 사이의 공통성(총회 요소)이다. 마태복음 23:8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며 각 교회 공동체들은 서로 형제다. 그러나 각 교회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노회와 총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엠던 총회의 교회 질서는 모든 교회 대표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는데, 어떤 개별 교회도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 혹은 축소할 수 없다. 모든 교회는 총회가 달리 규정할 때까지 이 규정을 유지하도록 전념하라고 끝을 내고 있다. 이 정신은 현대까지도 전 세계 개신교 교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엠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이후 여러 지방 총회들 즉 도르트레흐트 회의(Dordrecht 1574), 미델베르그 회의(Middelburg, 1581), 헤이그 회의(1586)와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도르트 총회(Dordrecht, 1619)에서 채택되었다. 독일 지역의 개혁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 결의를 채택했다. 이 엠던 총회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회와 개신교에 영향을 주었다.

엠던 총회의 결정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내부적 구조뿐 아니라 네덜란드 외부의 교회 질서도 형성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총회가 개교회를 존중하면서도 노회나 총회와 같이 상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절묘한 균형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교회의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생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서로 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총회의 조직은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그 이후 서구 근대 민주주의 사고 형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3.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의 완성인 도르트 총회(1618-19)

도르트 총회는 16세기 중기 네덜란드 종교개혁 이래 수만 명의 순교와 박해와 난민 됨의 고난 끝에 얻은 눈물겨운 신학적 열매다.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네덜란드 개혁주의는 교회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 도르트 총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벨직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을 잇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다. 오렌지공 모리쯔가 소집한 회의에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모든 개혁신교회 대표들을 초청함으로써 칼빈주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총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도르트 총회는 개혁신교회의 목회자 세움을 위한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¹⁰⁾ 목회자 후보자 교육에 관한 제일란트 대리인단의 견해를 보면 목회자 부족 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적절한 목회자 수급을 위해 교회와 학교,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각 주에 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회자 후보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5-6년으로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목회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질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주 정부는 목회자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미리 선별하도록 하며, 그들의 신학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고 네덜란드 의회는 이를 총괄 감독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1618-1619년의 도르트 총회는 국가의 큰 영향력 속에서 진행되었다. 3년마다 소집되는 전국총회도 관리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¹¹⁾

4. 개혁주의 교회개혁운동: 압스케이딩(Afscheiding: 분리, 1834)¹²⁾

이후의 네덜란드 역사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때까지 교회는 국가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1789) 이후 계몽주의에 의해 세례받은 국가는 다시 교회와 신학을 통제하려고 했다.

국가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권징조례에 의해 치리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신학적 주제에 대한 논쟁적 저작물들을 금지해서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의해서 전체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적 순수성과 통일성이 매우 흐려진 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교리적 부분과 교회적 필요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1816년에 공포된 ‘정관’은 이런 흐름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1834년 네덜란드 개혁신교회는 압스케이딩(Afscheiding)과 1886년의 돌레안찌(Doleantie)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교회와 신학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고,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확인하려고 했다. 헨드릭 더 콕(H. de Cock)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도르트신조의 신앙고백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과, 스콜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건 운동에 참여하는 일단의 개혁신교회들이 1834년에 화란 왕실 개혁신교회와 결별하게 되는 “압스케이딩”(분리: Afscheiding)이 발생하게 된다. 이 교회들은 1836년 최초의 총회를 열고 1618-19년의 도르트총회의 신앙을 확고하게 따르기로 하여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신경을 고백한다고

10) 홍주현, “도르트 총회가 제시하는 목회자세움 방안과 예배 회복,” 『개혁논총』 제35호 (2022), 2.

11) 김재운,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엠던총회(1571)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지역교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제35호 (2012): 28.

12) Herman Selderhuis, *Handbook of Dutch Church Histor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435-520.

밝혔다. 이것은 화란의 전통적인 영성이었던 삶 속에서의 경건을 회복하고, 신학과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하는 교회와 신학 개혁에 대한 열망이 당시 화란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열매 맺은 것이었다.¹³⁾

이 “압스케이딩”의 교회 개혁 운동은 1854년 12월 6일에 캄펜에 신학교를 세움으로, 학문성과 실천성을 겸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캄펜신학대학교의 공식적인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 교회 운동은 1869년에 총회를 열어 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라 지칭했는데, 이것의 영어 번역은 Christian Reformed Churches로서 이들 가운데 미국에 이민 가서 세운 교회가 동일한 이름의 기독교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es = CRC)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국립대학 신학부의 이중 구조화(1876): 국가임명 교수좌와 교단임명 교수좌의 분리

1876년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중의 교회법제도(duplex ordo)가 실시되었다. 국립대학교(레이든, 흐로닝언, 위트레흐트)의 신학부는 신앙을 위한 연구에서조차도 학문적으로 중립적일 것이 요구되었다. 신학은 종교학과도 같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자 대학은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서 “교회 교수좌(ecclesial chairs)”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교회 교수좌는 “신앙고백적 방법”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교수들은 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로부터 임명되었으나, 정부에 의해서 월급을 받았다.¹⁴⁾

6.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교회개혁 (Doleantie, 돌레앙찌: 1886)

아브라함 카이퍼를 따르는 일단의 교회들이 1886년에 화란 국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를 “돌레앙찌”(슬픔: Doleantie)라고 한다. 카이퍼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은 땅은 한 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카이퍼는 칼빈을 재발견하여 칼빈의 사상 체계의 정치적 발전을 체득했고, 개혁주의 신학의 근원(foundation)을 당대의 언어로 재형성(reformulation)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네덜란드 칼빈주의자인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카이퍼는 16세기 칼빈과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인 푸치우스(Voetius)와 콤리(Comrie)를 따르는 전형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였으며, 카이퍼는 칼빈에게서 나왔다고 정리하고 있다.

7. 현대 화란개혁교회의 분화와 연합

앞에 언급되었던 압스케이딩(분리: 1834) 교회 중 다수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돌레앙찌의 교회들이

13) 안인섭, 『한 권으로 읽는 교회사』, 386-393.

14) 안인섭, 『한 권으로 읽는 교회사』, 393.

연합하여, 1892년에 화란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를 형성하게 되었다. 캠펜 신학대학교와 자유대학교 모두로부터 이 교단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으며 두 대학은 형제 대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화란개혁교회 안에서 소수의 교회들이 1944년에 신학적, 정치적 이유로 분리해 나가 31조파 혹은 프레이허마크트(Vrijgemaakt)교회를 세웠으며, 같은 캠펜에 신학대학교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주로 한국의 고신 교단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캠펜신학대학교에서 개혁교회 교의학(Gereformeerde Dogmatik)의 저자이자 위대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가 1883년부터 1902년까지 거의 20년을 교수로 역임했으며,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거봉인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 교수가 평생을 사역했다. 그러나 압스케이딩의 교회 중에서 카이퍼와의 연합을 반대하는 일단의 교회들은 계속 기독교개혁교회에 잔류할 것을 고수하였으며, 아펠도른(Apeldoorn)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2004년 5월에, 오랜 과정을 거쳐서, 화란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개혁교회들이 (그리고 소수의 복음주의 루터교회도 참여하여) 170년 만에 공식적으로 연합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화란개신교회(Protestant Churches in the Netherlands)가 새롭게 창립된 것이다. 약자로는 화란어 앞자를 따서 PKN, 혹은 영어로는 PCN이라고 부른다.

2005년에 화란의 교육부(정부)는 국립대학 신학부에 국가임명 교수좌와 보수적인 교단임명 교수좌가 공존하던 이중구조(duplex ordo)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2007년에 화란개신교신학대학교(Protestant Theological University, 보통 약자로 PThU로 부른다)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화란개혁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기관이 새로 정립된 것이다. 거대 교단인 화란개신교회(PKN)는 2012년에 그 캠퍼스를 흐로닝언과 암스테르담으로 옮겼다. 2024년 현재에는 캠퍼스를 지리적으로 편리한 대학도시인 우트레흐트(Utrecht)로 이주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다.

8. 현대 화란개혁교회의 목회자 수급

위와 같이 칼빈의 제네바로부터 그 흐름이 이어졌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현재 목회자 수급과 신학교육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 화란개혁교회(Protestantse Kerk Nederland: PKN)¹⁵⁾

가장 규모가 큰 화란개혁교회인 PKN의 경우는 과거 국가개혁교회(HKN)와 화란개혁교회(GKN)이 연합되면서 형성되었다. 이 교단의 구조는 마치 연방제와도 같아서, 각 신학적-교회 정치적 그룹들의 정체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교단은 그 가운데 가장 다수이고 영향력이 막대한 개혁주의적이고

15) W.F. (Giel) Schormans 서면 인터뷰 (Gereformeerde Bond 소속 목회자 모집 전담자) Protestantse Kerk Nederland (PKN) (2024년 1월 30일).

보수적인 “개혁주의 연맹(흐리포르미어르더 본트: Gereformeerde Bond)”이 주도하고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교단 연합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교단의 목회자 수급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던 개혁주의 연맹 소속으로 교단의 목회자 모집 전담자인 스크르만스(W.F. (Giel) Schormans)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되었다.

1) 목회자 배출 방법

- (1) 교단의 신학교인 “개신교신학대학(Protestant Church in the Netherlands: PThU)”에서 목회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신학교는 교단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목회자 훈련기관이다.
- (2) 종종 타 교단 목회자들이 PKN에 오기도 하지만 이 경우 단기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목회자 수급 현황

- (1) 목회자가 점점 부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 (2)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은퇴로 인한 목회자 유출이 신입 목회자 유입보다 4~5배가 더 많았다. 흐로닝언-드렌터 노회(Groningen-Drenthe)의 경우 2028년에는 현재 195개 교회 중 2/3가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 목회자를 파송하는 규모는 거의 공석이 생길 때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 (4) 목회자 모집을 위해서 각 교회 간 협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목회직이 파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목회자의 은퇴 연령

- (1) 목회자의 은퇴 연령은 국가적인 퇴직 연령과 관련이 있다.
- (2) 현재 67세이다.
- (3) 그러나 목회자는 5년간 은퇴를 연기하고 72세까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다.

4) 목회자 임용 시, 대도시와 소도시 등 지역 간 차이의 유무

- (1)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네덜란드의 중부와 서부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 (2) 네덜란드의 북부, 동부, 남부에서는 회중이 목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목회직을 제안하기 위한 교단의 계획

- (1) 이 교단은 신학을 공부할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 (2) 이런 맥락에서 소명의 주일(vocations Sunday)을 실시할 계획이다.

6)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

- (1) 모든 네덜란드인은 국가(AOW)로부터 소액의 연금을 받는다.
- (2) 또한 목회자들은 연금기금에 가입하여 매달 기부금을 납부한다.
- (3)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목회자가 스스로 집을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

B. 화란개혁신교회 (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en: NGK)¹⁶⁾

이 화란개혁신교회는 한국에는 흔히 캄펜 부르더벵 신학교의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군소 교단과 연합하고 신학교의 위치를 캄펜에서 우트레흐트로 이주하면서 신학교의 이름도 “우트레흐트 신학대학교 (Theologische Universiteit Utrecht: Th. Utrecht)”로 변경했고 교단의 이름도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NGK)”로 새롭게 했다. 이 교단의 경우는 교단의 목회자이자 우트레흐트 신학교 교회법 교수인 판 덴 부르케(C. (Leon) van den Broeke) 교수와 온라인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1) 목회자 배출 방법

- (1) 화란의 개혁신교회의 교단에는 각각 고유한 신학대학이 있다. NGK에는 우트레흐트 신학대학이 있다. 참고로 PKN에는 개신교 신학대학, 그리고 CGK에는 아펠도른 신학대학이 있다.
- (2)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신학대학에서 석사 수준을 졸업해야 한다.

2) 목회자 수급 현황

- (1) 목회자 부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4년에는 목회자가 부족이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 (2) 사회의 세속화 과정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은퇴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이고, 어느 정도 교체(재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 (3)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목회자의 은퇴 연령

- (1) 목사의 은퇴 연령은 네덜란드 법의 은퇴 연령에 따른다.
- (2) 따라서 현재 은퇴 연령은 67세 3개월이다.
- (3) 67세가 정년이지만, 상황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교회(또는 목회자)가 필요로 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
- (4) 즉 목사가 은퇴했지만 그는 다른 교회의 부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지역 교회의 담임목사는 아니다.

16) C. (Leon) van den Broeke 서면 인터뷰 (교단의 목사이자 위트레흐트 신학교 교회법 교수) 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en (NGK) (2024년 1월 16일).

4) 목회자 임용시, 대도시와 소도시 등 지역 차이 유무

- (1)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과거에는 최근 졸업한 목회자들을 위한 전통적인 회중이 있었다. 그 교회들은 첫 번째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있다.
- (2)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회자들은 결국 시골 마을이 아닌 도시의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5) 목회직을 제안하기 위한 교단의 계획

- (1) 총회는 NGK 목회자의 전환 과정을 방해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무 그룹에 임무를 부여했다. 총회는 여전히 이 문제로 분주하다.
- (2) 그 측면 가운데 하나는 주택 문제이기도 하다. 회중은 목사가 살 수 있는 목사관을 소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목사가 스스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하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를 현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6)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

- (1) 은퇴를 위한 교회적 조치가 있다. 따라서 교회는 연금기금을 함께 관리한다.
- (2) 대부분 은퇴한 목회자는 목사관을 떠나 자신의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한다.

C. 기독교개혁교회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 CGK. 영어로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¹⁷⁾

이 화란개혁교회는 화란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아펠도른 신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이다. 미국의 북미개혁교회(CRC)와 영어식 이름이 동일하다.

1) 목회자 배출 방법

- (1) 일반적인 방법은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에는 가능한 한 최고의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되므로 학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3) 드물게 예외가 있는데, 설교의 은사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 해당한다.
- (4) 그들은 비록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목회자 수급 현황

현재 사역자가 약간 부족하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다.

17) Herman J. Selderhuis 서면 인터뷰. (교단의 목사이자 아펠도른 신학교 교회사 및 교회법 교수)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 (CGK) (2024년 1월 16일).

3) 목회자의 은퇴 연령

- (1) 67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
- (2) 목회자들 사역을 더 원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은퇴 연령 이상으로 더 봉사할 수 있다.

4) 목회자 임용시, 대도시와 소도시 등 지역 차이 유무

- (1) 목회자가 임용될 때 대도시와 소도시 등의 차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 (2) 다른 교회로 옮기기를 원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청빙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5) 목회직을 제안하기 위한 계획

- (1)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신학교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목회자들은 남학생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설교에서 이를 언급하도록 권장된다.
- (3) 아펠도른 신학교(TUA)는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6)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

- (1) 은퇴한 목회자들은 모두가 67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
- (2) 그 외에 교회에서 약간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된다.

IV. 미국 개혁/장로교회

1. 북미주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미국의 개혁주의적 교회와 장로교회 가운데서 북미주개혁교회(CRC)가 비교적 교단 헌법과 규정이 명확하고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있다. 이 북미주개혁교회는 감독제 교회와 다르고 또한 지역교회의 자율적 운영방식을 갖고 있는 회중식 교회와도 다른 장로회 제도를 따른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¹⁸⁾

1)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북미주개혁교회는 칼빈의 제네바의 교회법령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제시한다. B항에서 목사를 “말씀의 사역자”로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목사에 대해 설명하고

18)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 2022* (교회헌법과 보칙 2022)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22), Introduction.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목사 (말씀의 사역자)

(제6조)

- a. 목사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신학 훈련을 마쳐야 한다.
- b. 본 교단 소속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에서 말씀의 사역자 후보로 공포된 자는 목사로 청빙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미주개혁신학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길은 본 교단 소속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바로 이어서 제6조의 보칙(Supplement, Article 6)에서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이외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생은 편목과정(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EPMC)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칼빈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목사의 배출을 위한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

북미주개혁신학교회는 교단의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신학교는 총회가 지명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관할을 받으며 총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에 기록하고 있다.

(제19조)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theological seminary)를 유지한다. 이 신학교는 총회가 지명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관할을 받으며 총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북미주개혁신학교회는 칼빈이 강조했던 교사 혹은 박사(Doctor)의 직책을 제20조의 신학교 교수의 사역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신학교 교수로 지명된 말씀의 사역자의 직무는 신학생을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신학교 교수의 직분을 영문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 신학생을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하는 것이다(... appointed as professors of theology ... 그리고 to train students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expound the Word of God...). 그리고 교리를 지키는 것이다(... vindicate sound doctrine against heresies and errors.).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교회규정 제21조에 보면 “교회는 성도들을 권하여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지망하게 하며, 노회와 협력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규정에 의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로 교회는 (신실하고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encourage)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될

자원이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맥락에서 교회와 노회가 협력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목회자의 생활비

북미주개혁신교회의 규정은 제15조에서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각 교회는 카운실을 통해 소속 목사에게 적당한 생활비(proper support)를 지불해야 한다. 예외로 노회의 허락하에 목사가 교회와 동의하여 다른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일차적 또는 보조적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는 목사를 부양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는 교회로 제한된다.

북미주개혁신교회는 목회자에게 적당한 생활비가 지불되어야 할 것을 원칙적으로 밝히면서 더 나아가 15조 보칙에서는 “적당한 생활비”의 의미를 자세하게 정의해 주고 있다.

15조 보칙(Supplement, Article 15)

“적당한 생활비”의 정의

교회 목회자에 대한 적당한 생활비에는 충분한 월급, 건강보험, 주택, 본 교단의 연금 부담금, 연장교육을 위한 기금,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2004 총회회의록, 611쪽)¹⁹⁾

북미주개혁신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활비에 월급, 건강보험, 주택, 교단의 연금 부담금, 그리고 연장교육을 위한 기금과 사역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 발제문의 뒷부분에서 총회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제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필자는 본 교단에서 목회자의 연금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노회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지역 교회와 소규모 교회의 목회자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단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연금을 각 시교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은 지역 교회와 중소교회는 개교회가 연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개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함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5조 보칙은 계속해서 교회는 목사에게 최저임금, 부가 혜택 및 주거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목회자의 은퇴(retirement)

북미주개혁신교회는 제18조에서 목사의 은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oper support of a church’s minister is to include an adequate salary, medical insurance, a housing provision, payment to the denomination’s ministers’ pension plan, a continuing education stipend, and other employment-related items.” (Acts of Synod 2004, p. 611).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목사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목사는 은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은퇴는 카운실과 노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은퇴한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교회가 부여한 공적 사역을 수행할 권위를 갖는다. 즉 은퇴해도 담임목회는 아니지만 목사로서의 설교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목사의 감독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서 해당 목사와 그 부양가족이 품위 있게 생활할 비용을 지원할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의 보칙은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목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²⁰⁾ 은퇴의 연령이 66세라는 것과 목사가 희망할 경우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목사가 노회의 승인을 얻으면 55세에 조기 은퇴할 수 있는데 이때는 2011년의 총회 규정에 의해서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²¹⁾

5) 교회와 직분자의 지위

북미주개혁교회의 규정은 제85조에서 규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 85조의 내용이 최초의 화란개혁교회의 총회인 엠던총회(1571)의 제1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결론.

(제85조)

교회는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직분자는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결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북미주장로교회는 교회 간에 위계질서가 있지 않으며, 따라서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1571년 네덜란드 최초의 엠던 총회에서 네덜란드 본토의 “십자가의 교회”와 네덜란드 밖으로 떠났던 “피난민 교회”나, 그리고 프랑스어권 화란개혁교회나 화란어권 화란개혁교회 사이에 어떤 위계나 차등이 없다는 것을 밝혔던 역사적 개혁교회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2.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미국장로교회의 헌법은 2023년에 개정되었다. 이 헌법의 서문은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것을 교회

20)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 2022* (교회헌법과 보칙 2022)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22), 1968년 총회회의록, 69쪽.

21) *Church Order and Its Supplements 2022* (교회헌법과 보칙 2022) (Grand Rapi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22), 2011 총회회의록, 813쪽.

전체가 행사하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이 행사하든지 간에,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어떤 재판국도 양심을 속박하는 법을 만들 수 없”으며, “인간의 약점 때문에 교회의 모든 치리회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비록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을지라도 성경의 법도를 준수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1) 목사

교회정치 8-5는 강도장로인 목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5.

어떤 이가 강도장로로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장로들과 공유하는 기능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설교함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라 불린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무지하여 멸망할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라 불린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라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 불린다.²²⁾

미국장로교회의 강도장로인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진 자들이다. 또한 성례를 시행하는 자다.

2) 목사후보생(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과 인턴십

미국장로교회는 교회정치 제18장에서 목사후보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모든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노회의 보살핌 아래 있어야만 하고, 통상 그 노회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관할하는 노회여야만 한다.” 목사후보생이 소속된 교회의 당회는 목사후보생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추천서를 해당 노회에 보내야 한다.²³⁾

목사후보생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 년 이상 인턴십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목사후보생들은 일 년에 한 번 보고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목사후보생의 인턴십은 최소한 일 년인데 목사후보생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이나 그 후에 있을 수 있다. 규정은 인턴십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 있을 때는, 인턴십이 그의 신학 훈련 기간에 추가하여 일 년의 인턴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신학 훈련과 병행해서 수행될 수도 있다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22)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회헌법 미국장로교) (Lawrenceville, Georgia: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2023), 교회정치 8-5.

23)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회헌법 미국장로교), 교회정치 18-2.

또한 노회는 “지도 교수로부터 목사후보생의 품행과 근면함과 학업 성적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한다.”²⁴⁾ 이 부분은 신학교 학생들의 훈련과 목회 준비를 위해서 한국교회에게 의미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목사의 은퇴

미국장로교회는 목사가 소속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노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²⁵⁾ 특히 목사의 은퇴에 대해서는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나 의학적인 문제로 은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밝히고 있다.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병약해져서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어 더 이상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에게] 명예 은퇴 목사 호칭을 줄 수 있다. 목사는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이든 명예 은퇴를 했던 노회의 회원권은 계속되며, [노회의] 선출이나 임명에 의해 위원회나 전권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²⁶⁾

미국장로교회의 경우는 은퇴의 동기가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사가 연령상의 상황과 건강의 이유로 은퇴를 표명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은퇴 연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V. 목회자 자질의 중요성: 소명감의 고취와 개혁신학과 교회를 향한 열정

한국교회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하여 출판한 연구 가운데는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평가도 나온다.²⁷⁾ 이 연구에 의하면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1) 권위적이다(가부장적이다) (43.4%) (2) 리더십이 있다 (38.7%) (3)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다 (30.4%) (4) 물질에 욕심이 없다 (20.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개신교인의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도 30.1%로 비교적 낮게 나오고 있다.

이 연구는 그렇다면 한국교회 목회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 (1)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다 (37.3%) (2) 물질에 욕심이 없다 (23.7%) (3) 신앙생활에 솔선수범 (21.5%) (4) 리더십이 있다 (17.5%) 등의 순서로 결과나 나왔다.

결국 한국교회 목회자의 인격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목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경우 (1) 물질적 욕심 (21.0%) (2) 언행불일치

24)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회헌법 미국장로교), 교회정치 18-6, 19-7.

25)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회헌법 미국장로교), 교회정치 23-1.

26) *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회헌법 미국장로교), 교회정치 23-2.

27)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289-294.

(14.4%) (3) 인격, 윤리 등 부족 (14.0%) (4) 사회현실 이해 및 소통 부족 (11.6%)이며, 비개신교인의 경우는 물질적 욕심 3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격, 윤리 등 부족(24.3%)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⁸⁾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그것은 (1)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행일치의 삶 (41.4%), (2) 목회에 집중하며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것 (21.9%), (3) 영적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것 (17.5%), (4)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 (11.5%), (5)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7.5%) 등의 순서였다. 바람직한 목회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아 소형교회일수록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을 꼽았으며, 대형교회일수록 목회에 집중하며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높았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조사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다.³⁰⁾ 개신교 목회자는 타종교 지도자들, 즉 가톨릭의 신부와 불교의 스님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각 노회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경우가 먼저 목회자의 소명의식과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로 헌신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명확한 소명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지방의 목회자 수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동시에 지역 교회의 부교역자 초청은 더욱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시대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박해를 받거나, 혹은 피난민이 되어서 이역 만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선포했다. 프랑스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의 청교도의 목회자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섬겨온 경우다. 프랑스 개혁교회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십자가 밑의 교회(Church under the cross)”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바른 신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경우도 먼저 명확한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총회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더욱 더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VI.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 제안

목회자의 소명의식을 전제로 하면서, 실제로 교단의 목회자 수급을 파악하고 조정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총회미래정책위원회와 총회미래정책연구소의 활동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단의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한 총회의

28)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363-367.

29)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367-369.

30)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244-261.

목회자 양성 기관인 총신대 신대원(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은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담임 목회자 수급

기본적으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회 차원에서는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목회자 처우 문제는 목회자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조건이면서도 동시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기 위한 실제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물론 안정된 직장의 개념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1) 목회자 연금제도

목회자들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래서 소명에 충실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연금제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수도권과 도시의 중소교회, 농촌 지역 교회 등에서 소명감 있고 실력 있는 목회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미국의 모든 장로교회와 개혁신교회, 화란의 개혁신교회는 모두 목회자의 연금제도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교단의 경우에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연금제도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 목회자 연금제도는 전체 교단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개교회나 노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더욱 전문성 있는 기구를 통해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연금제도를 확고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목사의 정년 문제

목사의 정년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며 개혁신학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다. 목사 정년은 가시적인 제도적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사회적, 국가적 환경과 맞물려 신학적 고려와 교회의 공감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 71세 직전일까지 정년으로 되어 있다.

(1) 현행대로 실시할 경우

긍정적인 면

담임 목회자를 고대하고 있는 40-50대 목회자들은 평생을 부목사로 은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고연령 목회자와 중장년 목회자 간에 의견의 대립이 적을 것이다.

목회자 정년과 관련하여 교단 내 혼란이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면

농촌지역 교회나 도시의 중소교회가 겪고 있는 목회자 수급 적신호에 대응할 수 없다.

(2) 목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목사 정년은 현행대로 만 71세(생일 전까지)로 한다. 단, “세례교인 50명 미만의 교회”에서 “교회나 목사가 청원하고 노회에서 심사하여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서 만 73세(혹은 75세로 고려할 수도 있음)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총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측면

목회자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잠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립이 어려운 교회나 농촌 지역 교회의 경우 폐 당회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에 실시한 전국 노회의 설문조사에서 일부 제시되었던 문제의식이었다.

정년을 교단 헌법에 명시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CRC 교단이나 화란의 개혁교회 교단들 즉 가장 큰 규모의 개혁교단인 PKN, 소위 캠펀 브르더벡 교단인 NGK, 그리고 아펠도른 신학교의 기독교개혁교회(CGK) 등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고려되어야 할 측면

목회자 정년 연장은 향후 지역 교회의 목회자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단지 몇 년 늦출 뿐이지 본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고령의 목회자가 효과적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아직 담임목회자가 되지 못한 장년층 목회자들의 미래가 염려된다.

세례교인 50명이라는 조건을 강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목사나 교회나 노회에서 이 규정대로 정직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공신력 있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요청된다.

세례교인 50명이라는 숫자가 목사 정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의 조건으로서 얼마나 정당한지 교단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3) 교회의 합병

전국 노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교회들의 경우,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도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가 재정적이고 인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담임 목회자의 은퇴 이후 후임을 청빙 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두 교회가 연합 즉 합병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 경우 교회 재산이나 예배 처소, 혹은 양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총회 차원의 <매뉴얼>이 있어서 잘 안내해야 할 것이다.

2. 부교역자 수급: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특정한 사역 경험을 추가하는 경우

전국 노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담임 목사 수급도 문제이며, 특히 부교역자의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안)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 목회 경력 2년 추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 중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신대원과 강도사 기간 중 2년 이상 교회 사역을 한 자에게 안수를 주도록 한다. 단 교회 사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이 경우는 수도권 이외의 교회가 겪고 있는 부교역자 수급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측면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의 중소교회 역시 부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선교에 목회 비전과 철학이 있는 목사후보생이나 강도사의 경우에 목사 안수 자격 요건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없는 교회의 경우에 대한 대안이 요청된다.

(B안)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하는 목회 경력 2년 추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 중에 신대원과 강도사 기간 중 2년 이상 교회 사역을 한 자에게 안수를 주도록 하되, 단 교회 사역은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교회 사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중대형 교회가 아니면 실제로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측면

세례교인 100명이라는 숫자를 목사 안수 조건에 명시할 때 이 숫자가 얼마나 적당한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교단적 합의가 요청된다.

이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교인 수가 많은 수도권의 교회가 아닌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여전히 부교역자 수급의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A안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의 경우 역시 부교역자를 초빙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C안)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수도권 이외 지역 목회 경력 2년” 혹은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하는 목회 경력 2년” 추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위의 A안과 B안을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신대원과 강도사 기간 중 2년 이상 교회 사역을 한 자에게 안수를 주도록 하되, 단 교회의 사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거나, 혹은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이 안은 목사 안수 자격에 교회 사역이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위에 A안과 B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즉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의 부교역자 수급이나 혹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부교역자를 초빙하기 어려운 100명 이하 교회의 부교역자를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측면

그러나 이 경우는 앞의 A안과 B안의 경우의 문제와 같이, 수도권 이외에 있거나 세례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가 부교역자를 초빙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회의 부교역자 즉 강도사나 전도사의 생활비를 개교회가 맡는 것이 아니라 노회 혹은 총회에서 일부 분담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목회자 연장 교육 : 총신의 양지 Th.M.과정의 활성화와 지역별 주요 교회의 목회 멘토링 시스템 구축

이번 연구에서 각 노회별 설문조사에서 파악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각 지역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목회자들의 경우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 더 이상의 신학적 재공급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설교와 목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다른 교단들에서도 동일한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목사는 총신대의 Th.M. Th.D. 혹은 Ph.D. 과정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 재충전을 할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신설된 양지 Th.M. 과정은 부교역자의 연장 교육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과정이다.

이때 각 지역별 주요 교회에서 목사 연장교육을 받는 부교역자들을 멘토링하는 과정을 양지 Th.M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트신학교의 한국어 D.Min. 과정에서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4.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교육: 총신신대원과 목회자 수급

앞에서 화란의 모든 개혁신교회들과 미국의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는 교단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학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교단도 총회의 목사를 배출하기 위한 총신신대원 교육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2014년에서 2024년 총신대 신대원 졸업생 수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졸업자의 총신 수강 인원을 보면 아래와 같다.

(M.Div.)	2015.2. 382명 (108회). 칼대광	2015.1. 175명
	2016.2. 361명 (109회). 칼대광	2016.1. 121명
	2017.2. 376명 (110회). 칼대광	2017.1. 112명
	2018.2. 203명 (111회). 칼대광	2018.1.(총회에서 교육)
	2019.2. 557명 (112회). 칼대광	2019.1. 115명
	2020.2. 362명 (113회). 칼대광	2020.1. 90명
	2021.2. 364명 (114회). 칼대광	2021.1. 95명
	2022.2. 367명 (115회). 칼대광	2022.1. 101명
	2023.2. 320명 (116회). 칼대광	2023.1. 67명
	2024.2. 305명 (117회). 칼대광	2024.1. 49명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타고난 은사에 탁월한 증거가 있는 자”³³⁾는 예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허락될 수 있다”는 규정이 등장한다. 즉 평신도로서 교회 사역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2) 커리큘럼

CRC의 규정 제7조 b항에 의하면 이들을 위해서 수정된 편목 교육 과정(EPMC)을 받아야 할 것(required to complete the Modified 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안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정리해 보자면 전문적인 신대원생은 아니지만 신앙적 열정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고 말씀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회교육 현장에서 일정 부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CRC의 규정은 이 경우 제7조 보칙에 의해서 이들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시험 과목을 (1) 신약과 구약 주해 (2) 성경 역사 (3) 조직신학 (4) 일반 교회사, 미국 교회사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원어시험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 또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 보면 성경 과목, 조직신학 과목, 그리고 교회사 과목을 듣고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기에 더해서 “교회교육” 과목과 “상담” 과목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3) 지역 거점 헌신자 신학교육 시스템의 구축

이 교육 시스템의 경우 그 목적이 목사 배출이 아니지만, 각 지역별 교회교육 현장에 준비되고 헌신된 사역자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은 교단의 목회자 배출 기관인 총신대 신대원에서 기획하고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권역별로, 즉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나누어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지역 교회교육 현장 사역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총신신대원 뿐만 아니라, 칼빈, 대신, 광신 등 교단 내 신학교가 연합해서 강의 요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외에 현재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전임 교수로 사역하고 있지 않은 본 교단 소속의 젊은 신학 박사들이 교단의 신학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역의 총회인가 신학교들이 실제로 교단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학교도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재정

각 지역의 소규모 교회의 경우 이 지역 거점 신학교육 시스템을 위한 재정을 담당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33) 원어는 다음과 같다. “... but who give evidence that they are singularly gifted as to godliness, humility, spiritual discretion, wisdom, and the native ability to preach the Word, may, the way of exception, be admitte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물론 교육 대상자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 시스템은 개교회뿐 아니라 지역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은 각 노회별 공공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지역 교회의 경우 재정이 열악할 것이므로 총회 차원에서 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권역 혹은 지역의 대형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 현장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5) 고려할 점

위와 같은 교회교육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먼저 그 신학교육의 기초가 본 교단에서 지향하는 철저한 개혁신학 위에 서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 교회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여 노회나 교단 정치의 무대가 되어서는 그 선한 목적이 상실될 것으로 사료 된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단의 연합성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단의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총신신대원의 중심추 역할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6) 정기적인 지역별 순회 세미나 개최

위와 같은 목적과 고려할 사안들을 염두에 두면서 전국을 순례하며 양질의 지역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교회교육의 붐을 일으키고 지역 교회 현장의 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세미나의 강사들을 각 권역별로 상호 조합하게 되면, 지역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교단의 연합정신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여성 사역자의 활동

총신 신대원의 여원우의 입학과 졸업생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 입학 41명, 졸업 31명,
2015년에 입학 56명, 졸업 44명,
2016년에 입학 55명, 졸업 44명,
2017년에 입학 52명, 졸업 30명,
2018년에 입학 42명, 졸업 74명,
2019년에 입학 59명, 졸업 45명,
2020년에 입학 84명, 졸업 40명,
2021년에 입학 42명, 졸업 61명,
2022년에 입학 58명, 졸업 65명,
2023년에 입학 50명, 졸업 38명,
2024년에 입학 67명.

신대원에 여학생의 입학과 졸업은 유지되거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졸업한 이후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 문제로 교단을 떠나는 예가 많았다. 물론 여성 목사안수는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역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사역자의 지위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와 더불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여성 사역자를 어떻게 공급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인지 목회 인력의 수급에 대한 논의 또한 별도의 맥락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미래를 위한 고려 사항: 해외 선교 자원 개발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목회자 개발

향후 한국의 목회자들이 해외 선교의 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시대를 대비 목회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사명이 더욱 요청된다. (*)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연구주제 1]



총회 목회자 수급의 현황과 해결 방향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이종민 교수)

목회자 수급의 현황과 해결방안

이종민 교수

(총신대 기독교교육)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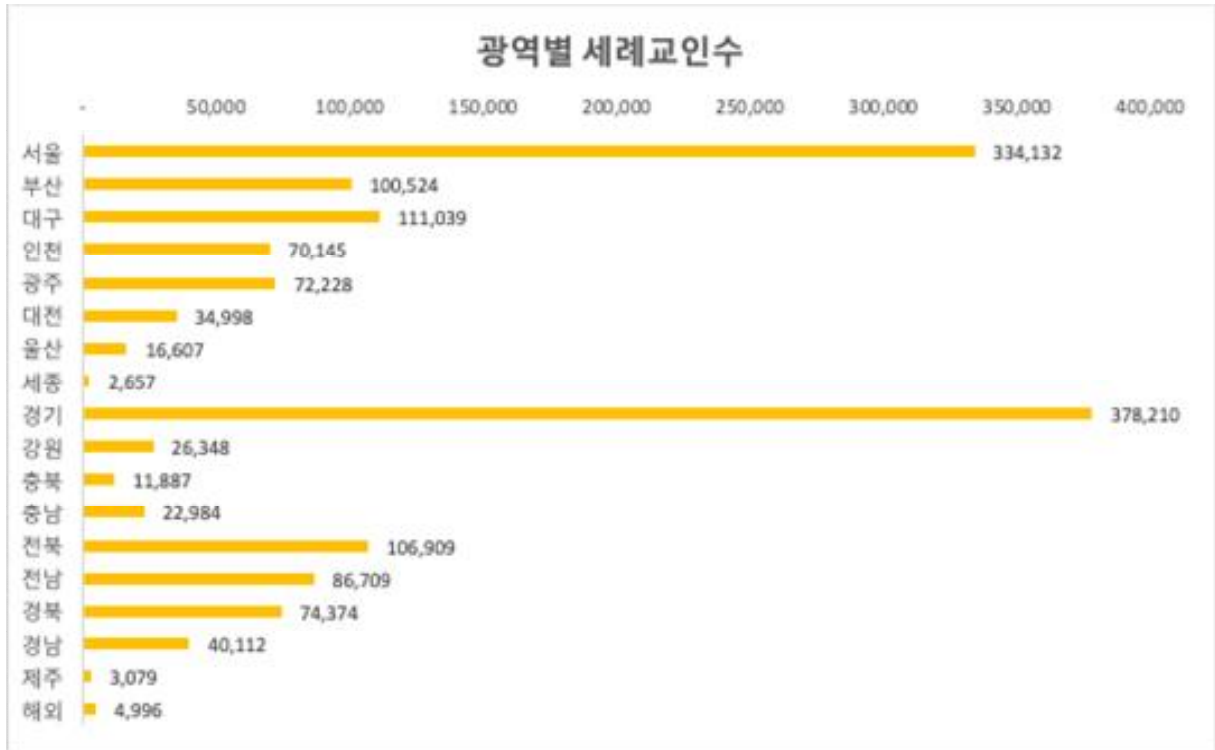
2023년 총회자료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합동) 측 교단에 속한 교회는 11,235개이고, 세례교인 수는 1,497,938명이다.

지역적 교세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334,132명과 378,210명으로 약 70만 정도의 세례교인이 수도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산(100,524명)과 대구(111,039명) 그리고 전북(106,909명) 순으로 각각의 도시와 지역에 10만명 이상의 세례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3,079명)와 세종(2,657명)은 지역적 특색상 가장 적은 세례교인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총회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 등록되어 있는 담임목회자의 수는 11,235명이고, 부목사의 수는 6,876명이며, 무임목사의 수는 1,763명이다. 그 외에 기관목사가 142명, 선교사가 661명, 그리고 군종목사가 59명이다. 한편 2023년에 강도사 인허를 받은 강도사가 456명이고, 목사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328명이다.

[표1-1] 2023년 총회전국교회 목회자 현황

구분	담임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군종목사	목사후보생	강도사	합계
수	11,235	6,876	1,169	1,471	1,763	142	661	59	1,328	456	25,160



[그림 1] 2023년 총회전국교회 광역별 세례교인수 현황

본 총회자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총회산하전국교회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도 총회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목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15년간 발생하게 될 담임목사 은퇴와 그에 따르는 담임목사 수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2024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한 노회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재 총회전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목회자 수급에 대한 과제와 필요성 그리고 대안적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목회자 수급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특정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 크기, 분포, 구성 그리고 변동을 수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2023년 말 기준 총회자료를 참고하였다. 특별히 163개 노회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교회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업군별—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합격자 등—로 인구의 크기를 확인하였고, 노회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직업군별 분포 사항과 연령별 분포 사항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군 간의 변동 사항을 비교함으로써 담임목사 수급에 대한 현재적 상황과 향후 15년간 나타나게 될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1) 담임목사 현황

2023년 말 총회자료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 등록되어 있는 담임목사 수는 총 11,235명으로 연령대 별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출생자가 4,945명(4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950년대 출생자가 3,312명(29.4%)이며, 1970년대 출생자는 2,427명(21.5%)를 차지하고 있다.

[표2-1]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 연령대별 담임목사 현황

출생년도	1950년대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미상	합계
인원수	354	3,233	4,945	2,427	254	1	21	11,235
퍼센트	3.2	28.8	44.0	21.6	2.3		0.1	100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교단 헌법에 항존직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에 따르면 담임목사로 현직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가 총 872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은퇴하고 사역을 다음세대 목회자에게 이양해야 하는 담임목사가 전체 담임목사들 중에서 7.7%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2-2]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 담임목사 현황(1936년출생-1953년출생)

출생년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수	1	2	4	7	7	11	15	14	18
출생년	1945	1946	1947	1748	1949	1950	1951	1952	1953
수	18	26	30	54	68	79	96	182	240

한편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향후 15년간 담임목사가 교단헌법에 따라 은퇴를 할 경우 누적되는 목회자는 총 8,063명이다. 그 중에서 1960년대 출생자가 은퇴하게 되는 2030년도에 578명으로 최고로 많은 수가 은퇴를 하게 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203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은퇴자 수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2024년 올해 교단 헌법에 따라 은퇴해야 하는 담임목사의 수는 368명이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5년간은 400명 중후반에서 500명 초반까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31년부터는 감소세가 줄어들어 500명대 초반으로부터 시작하여 400명대 후반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 은퇴목사 누적수 현황(2024-2038년)

출생	은퇴년	명수	누적
1953 이전 출생	2023	872	872
1954년생	2024	368	1,240
1955년생	2025	444	1,684
1956년생	2026	436	2,120
1957년생	2027	470	2,590
1958년생	2028	489	3,079
1959년생	2029	508	3,587
1960년생	2030	578	4,165
1961년생	2031	542	4,707
1962년생	2032	525	5,232
1963년생	2033	460	5,692
1964년생	2034	485	6,177
1965년생	2035	455	6,632
1966년생	2036	490	7,122
1967년생	2037	498	7,620
1968년생	2038	443	8,063

하지만 2038년까지 은퇴할 담임목사의 누적 숫자를 볼 때에는 다소 심각성이 예측된다. 특별히 현재 담임목사 전체 수가 11,235명인 것을 전제로 2038년까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수는 8,063명으로 전체 담임목사의 71.7%가 은퇴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현재 부목사와 강도사 숫자를 고려할 때, 2030년을 기점으로 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지역교회 분포를 기초하여 담임목사의 은퇴자 수의 현황을 파악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3년 사이(2024년-2026년)에 은퇴해야 하는 담임목사는 총 1,669명으로 전체 담임목사의 14.8%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지역노회에 해당하는 담임목사가 331명,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담임목사가 219명, 그리고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담임목사가 246명이다. 그런데 2027년부터 2031년 사이에 은퇴할 담임목사의 수는 총 2,587명으로 전체 담임목사의 23%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지역노회에 해당하는 담임목사가 416명,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담임목사가 410명, 그리고 서울지역에 해당하는 담임목사가 361명이다. 그리고 2032년부터 2036년에 은퇴할 담임목사는 총 2,415명으로, 무지역노회가 404명, 서울지역이 364명, 그리고 경기지역이 323명이다. 따라서 무지역노회와 서울지역노회 그리고 경기지역노회에 소속된 담임목사만 전체 담임목사 중에서 27.3%인 3,074명임을 알 수 있다.

[표 2-4]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 지역별 담임목사 은퇴자 수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해외	무지역	합계
52-56년	17	246	41	107	74	31	53	54	219	14	96	128	197	8	13	33	18	331	1,669
57-61년	25	410	71	164	120	62	88	89	361	35	168	187	275	8	18	50	15	416	2,587
62-66년	23	323	53	174	124	70	67	92	364	38	125	183	261	6	19	54	11	404	2,415
67-71년	17	317	58	159	101	54	87	96	336	23	96	159	235	7	7	43	11	404	2,222

2) 부목사 현황

2023년말 총회자료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 등록되어 있는 부목사 수는 총 6,876명으로, 연령대 별로 분석해 보면, 1950년대 이전 출생자가 681명이고, 1950년대 출생자가 855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교단헌법상 은퇴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1970년대 출생자가 2,2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60년대 출생자가 1,569명이며, 마지막으로 1980년대 출생자가 1,189명이다. 그리고 그 외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이 148명이다.

[표 2-5]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 출생년대별 부목사의 수 현황

출생년대	1950년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미상	합계
인원수	681	855	1549	2277	1189	147	1	177	6876

그런데 현재 담임목사들이 은퇴하는 2038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70년대 출생자가 2,277명이고, 여기에 1980년대 출생자가 1,189명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출생자가 148명으로 총 3,614명이다. 이 숫자는 2038년까지 은퇴하는 담임목사 숫자가 8,068명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별히 2023년을 기준으로 은퇴해야 할 담임목회자 수 872명을 제외한 7,196명에 비하면, 앞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교회는 현재 교회의 절반(50.2%)밖에 안된다는 수치적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표 2-6]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 지역별 부목사 수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해외	무지역	합계
52-56년	3	76	14	26	15	30	8	34	72	7	29	19	28	1	1	9	3	96	482
57-61년	2	96	14	31	12	27	11	25	107	5	38	34	19	1	2	4	1	114	556
62-66년	4	127	14	31	13	33	13	38	136	6	39	34	37	1	3	4	3	141	687
67-71년	5	166	14	54	35	59	17	49	282	11	66	49	66	2	3	12	5	194	1,106
72년이후	11	657	37	127	112	186	90	168	712	44	138	121	119	7	1	32	9	529	3,115

특별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대 별로 부목사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1967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출생한 부목사의 수는 총 4,221명이다. 이들 중에서 서울지역 노회에 가입한 부목사는 994명이고, 경기지역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목사는 823명이며, 무지역노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목사 수는 723명으로 총 2,540명이다. 이는 앞에서 무지역과 서울 그리고 경기지역 노회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2036년까지 은퇴하게 될 담임목사 수 3,074명에 비해 대략 500명 정도가 부족한 인원임을 알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서울지역에 속한 노회들의 경우, 2036년까지 은퇴하게 될 담임목사의 수는 944명인 반면에 부목사의 수는 994명으로 인원이 초과되는 반면에 무지역노회의 경우에는 1,151명의 담임목사가 은퇴하는데 부목사는 823명 밖에 없고, 경기지역노회의 경우에도 979명의 담임목사가 은퇴하게 되는데 부목사는 723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무지역노회 교회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강도사 현황

강도사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강도사고시 합격자 수를 고려할 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신대원에 입학하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결과이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300명대의 강도사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7] 총회자료 2013~2023년도 강도사고시 합격자 현황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712	705	668	552	455	625	625	507	380	380	456

또한 2023년말 기준 총회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강도사고시 합격자는 총 456명이다. 그 중에서 1967년 이전에 출생한 강도사는 93명이고, 1967년 이후에 출생한 강도사는 361명이다. 이중에서 제주지역노회, 충남지역노회 그리고 해외노회에서는 한 명의 강도사고시 합격생이 배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원지역노회와 경남지역노회, 울산지역노회 그리고 충북지역노회는 한 자리 수의 합격자만 배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지방적 특색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현재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교단 내에서 안수를 받은 부목사를 청빙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추세로 강도사고시 합격자가 배출될 경우, 부목사 수급은 물론이고, 담임목사 청빙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1967년 이후에 출생한 강도사고시 합격자 수가 361명인데, 그에 비해 담임목사가 충원되어야 하는 교회의 수는 7,196명으로 5%밖에 이르지 못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은퇴한 모든 교회에 현재 부목사들이 모두 청빙을 받는다 하여도 3,582개 교회가 담임목사가 부족한 형편이고, 이는 모든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는다

하여도 10% 밖에는 충원할 수 없는 숫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적인 결핍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목회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 분석할 수 있다.

[표 2-8] 2023년 말 총회자료 지역별 2023년 강도사고시 합격자 현황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해외	무지역	합계
51년이전	0	2	0	1	0	0	0	0	0	0	1	1	0	0	0	0	0	1	6
52-56년	0	0	0	1	1	0	0	1	1	0	1	1	2	0	0	0	0	2	11(1)
57-61년	1	5	0	0	2	3	0	4	2	0	1	1	2	0	0	1	0	6	29(1)
62-66년	0	9	0	1	1	3	3	2	7	0	5	2	6	0	0	0	0	8	47
67-71년	0	14	1	5	4	5	2	12	23	3	3	4	8	0	0	1	0	13	100(2)
72년이후	1	43	1	8	9	17	6	15	72	5	12	5	22	0	0	0	0	42	261(3)
	2	73	2	16	17	28	11	34	105	8	23	14	40	0	0	2	0	72	

3. 목회자 수급에 대한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본 연구는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명의로 163개 노회에 “목회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노회 임원 의견 수렴 자료”를 2024년 1월 2일에 전화문자로 1차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 2월 21일에 2차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월 29일까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총 75개 설문지가 수거 되었으며, 질적연구 방법론을 통해 현재 각 노회가 직면하고 있는 목회자 수급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고, 동시에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다.

1) 목회자 수급에 대한 현안

70노회 회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교인수는 오십명 정도이며 부교역자는 없습니다. 주교와 학생부 청년부가 있지만 부교역자를 구하는게 힘들어 아직 없습니다. 재정도 문제이나 작은교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구하기 힘들죠. 언제부터인지 이런 상황에 많이 버겁습니다.”

58노회 노회서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부교역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고, 오더라도 40대후반이나 50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첫째, 담임목사 수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담임목사 자리를 찾는 목회자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부목사나 전도사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며 공통적인 의견은 지원 자체를 안한다는 것이다. 물론 큰교회나 자기이력에 도움이 되는 교회는 지원을 많이 하지만, 200이하의 교회는 지원 자체를 잘 안한다고 한다. 저도 성도가 50명 정도 되는데 아예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파트로 일하실 분도 된다고 하니까 50초반, 나와 비슷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한다. 지금 노회 상황을 보면 60%이상 이미 자립이거나 장로한 분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들이다. 이런 작은 교회는 전도사는 품귀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목사를 두기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교인수 50명 정도 되는데 상가를 분양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파트로 50대 초반의 교육목사를 두었는데 다른 교회로 가면서 전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60대 중반의 여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전도사나 젊은 사역자를 구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위에 제시된 자료는 현재 교회가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다. 75개 노회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의 의견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크게 6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교역자와 관련된 것, 둘째, 교회 규모와 관련된 것, 셋째, 교회 위치와 관련된 것, 넷째, 교회 재정과 관련된 것, 다섯째, 교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여섯째,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세분화하여 검토하면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목회자 수급과 관련된 현안 문제

영역	세부사항
부교역자	수급대상에 상관없이 어려움, 지원자의 나이가 높음, 지원자의 자질이 부적합함,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음, 무임목사/사역 안하는 목사 많음.
교회 규모	교회 형태(개척교회, 미래자립교회, 작은교회, 기도처)에 따라 수급이 어려움, 100명이상 교회임에도 수급이 어려움, 300명 이상 교회인데 타교단 교역자를 채용함.
교회 위치	지방권 중 시골과 소도시는 수급이 어려움, 경기권 및 광역시도 수급이 어려움, 특수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함
교회 재정	교회 재정 구조가 너무나 열악함, 생활비마저 책임 못지는 열악함,
교세	교세 감소, 코로나 여파, 교인의 도시이주 및 노령화
시스템	지방신학교 붕괴, 노회가입률 저조, 배출된 목회자 관리프로그램 부재,

① 목회자와 관련된 영역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첫 번째는 현재 지역 교회들이 교회사역자들을 모집할 경우, 담임목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목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교육전도사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부분의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67노회 구제부 부장 “교역자 청빙이 어렵습니다.

9노회 노회원 “여기는 담임목사나 부교역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움이 많습니다.”

65노회 회원목사 “부교역자나 전도사를 청빙할 형편이 안 됨”

6노회 총대 “부목사 청빙 어려움”

19노회 노회원 “전도사 수급 어려움”

33노회 노회부서기 “전도사 채용의 어려움”

15노회 회원 “부목사, 전도사 구하기 어려움”

15노회 회원 “부목사, 전도사 구하기 어려움”

43노회 회록서기 “교육전도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7노회 노회서기 “부교역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목사를 청빙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교육전도사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단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회자 수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지적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타났다.

16노회 노회장 “총회 임원 및 실권자들이 목회자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두 번째 어려움은 부교역자들을 모집할 경우, 지원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이전과는 달리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원자가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부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임을 기술하고 있다.

10노회 노회서기 “부목사님 수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것이 어려움입니다. 지원하는 목사님의 평균적인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입니다.”

20노회 노회서기 “부목사, 전도사 모집 광고를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50세 이상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30노회 시찰서기 “부교역자 구하기 (전도사)가 너무 힘듭니다. 교인수 50명 주일학교, 중고등부 5명이내, 수도권인데, 중고등부 사역자를 초빙하려고 하니 나이 많은 사람만

지원(50대 이상)하여 힘들”

58노회 노회서기 “저희 교회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파트로 50대 초반의 교육목사를 두었는데 다른 교회로 가면서 전일부터 알고 지내던 60대 중반의 여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전도사나 젊은 사역자를 구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처럼 부교역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은 인구통계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현재 부목사들의 연령분포를 감안할 때 약 10년간 지속될 것을 예상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그나마 높은 연령층의 지원자도 사라질 형편이다.

세 번째로 부교역자를 구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자질과 관련된 의견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사명감이 없거나, 신뢰감이 떨어지거나, 만족스러운 목회자가 없다는 지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사역을 못하고 있거나, 사역을 하고는 싶으나 무임목사로 있는 목회자가 많다는 지적이 발견되었다.

29노회 노회원 “물론 사역자의 소명감도 문제이다.”

37노회 노회서기 “믿고 맡길만한 사람 찾기 힘들, 충주시 이단이 성행 하는 곳이다.”

47노회 노회서기 “맘에 맞는 교역자가 아니라 사역하겠다는 교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25노회 노회서기 “현재 사역을 못하고 있는 목회자가 많음.”

27노회 노회서기 “지원하더라도 대부분 함양미달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목회자 수급에 있어서 다양한 부문에서 목회자를 수급하는데 차질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특징이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과 자질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지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② 교회 규모

교회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교회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형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단계인 개척단계를 비롯하여, 개척은 하였지만, 20인 이하의 미래자립교회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기도처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곳도 많으며, 이보다는 조금 성장했지만 여전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교회의 형태를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3노회 노회원 “개척교회로서 수급필요성 없음”

63노회 부서기 “개척하여 상가임대교회하고 있으며 성도가 이동성이 심하다. 코로나로 성도가

줄어 현재 9명 출석하며 작은 상가교회를 기피하는 성향”

23노회 부노회장 “20명 미만 교회가 다수입니다.”

35노회 회원 “거의 80프로가 미자립이다”

29노회 노회원 “작은교회의 어려움은 결국 사례비가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듯 하다. 물론 사역자의 소명감도 문제이다.”

2노회 노회서기 “소형교회라서 관심이 없는건지 전혀 지원을 않습니다.”

54노회 노회서기 “사례비나 처소보다도 규모가 작은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

31노회 목사 “작은교회 부교역자를 구할 형편이 안됨”

21노회 노회원 “전국에 목회지가 없어 반강제 개척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찾아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인력의 재분배), 교회수가 자량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임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처를 돌아봐 주세요 그럼 답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신학생이 미달인 진짜 이유를 봐 주세요”

두 번째 교회 규모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어려움은 규모가 1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들이 연결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 때문에 목회자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규모가 3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타교단 목회자들을 교회에 채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67노회 구제부 부장 “인천에 위치하였고, 교인수는 100여명입니다.”

27노회 노회서기 “부교역자가 전혀 채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100명 미만의 교회뿐만 아니라 300명 정도의 교회까지 부교역자 채용이 전혀 안됩니다. 지원 자체를 하지 않고”

68노회 회록서기 “인천지역 교세가 약 300명 정도인데 부교역자(부목사.전도사) 수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교단 교역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교회의 규모와 관련하여 목회자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물리적인 숫자가 모자라서인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임사역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파트사역자를 채용하기 위해 타교단 목회자나 교육전도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③ 교회 위치

교회 위치는 기본적으로 교회 주소지에 따라 수도권, 경기권, 그리고 지방권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권과 경기권 보다는 지방권들이 목회자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군단위와 같은 농촌이나 시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권에서도 광역시를 제외하고 소도시에 있는 지역교회들은 그 지역이 호남권이든 영남권이든 상관없이 목회자를 수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42노회 노회서기 “어려운 지방 기피현상”

45노회 노회서기 “시골이라 부목이나 전도사 수급이 안됨”

49노회 노회서기 “농촌지역이다보니 담임목사에 대한 지원자는 더러 있으나 부목사 및 전도사 지원자는 없음”

1노회 노회장 “시가 아니라 군단위라서 교육전도사(파트사역자)보다도 전임사역자(부목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단위에 있어서 그런가 전임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56노회 노회서기 “부목사를 비롯해서 지방으로 사역 안 내려옴, 창원, 경남”

13노회 친교부장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지방에 부목사 전도사 수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55노회 노회서기 “지방(대구)에 있는 중소형 교회(200명 이하)는 부교역자 수급이 어렵습니다.

59노회 노회서기 “부목사 또는 전도사 수급은 지방에서는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울산의 경우, 큰 규모의 대형교회가 아닌 중소형교회에서는 부목사와 전도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목사나 전도사 사역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노회나 개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교회 위치와 관련하여 목회자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경기권이거나 지방권 중에서도 광역시에 속하는 교회들이다. 이들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이 아니고서는 목회자들이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28노회 노회부서기 “서울 대형교회가 아니면 사역자를 구하기 쉽지 않음.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인데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전도사를 못 구하고 있고(아예 지원자가 없음), 현재 노회장 목사님 교회도 중고등부 사역자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6노회 노회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부교역자(여전도사포함) 수급이 거의불가능한 현실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지방 사역을 위하여 신대원에서 신학생들을 전도사로 보내주거나, 총회에서 특정 지역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없을뿐더러, 홍보한다고 하여도 그 지역에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없는 형편이어서 특수 지역들—제주, 낙도 등—은 목회자를 수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62노회 평회원 “목회자 수급의 어려움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입니다. 재정적인 이유도 있으며, 지방이기에 지원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전에는 총회신학대학원에서 보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전도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지금은 지원하는 전도사도 없습니다.”

④ 교회 재정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재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려움을 교회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하소연이었다. 특별히 목회자를 청빙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정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많았다.

26노회 노회서기 “재정상 심방파트 여전도사 청빙 어렵고”

50노회 노회서기 “재정적 어려움이 제일 큼니다”

4노회 노회원 “교인 수가 적고 재정도 부족하니 더 이상의 사역자에 필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38노회 노회원 “교회가 성장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사는 지역은 고양시, 교회 규모는 현재 25명, 자립이 어려워 이중직으로 생활중임”

8노회 노회원 “우선 지금은 성장이 많이 둔화되다보니 부교역자를 청원하고 싶지만 재정적이나 숫자적인 면에서 힘이 부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으로써 목회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의 형편이 호소하면서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적절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소연하였다.

53노회 노회서기 “부목사, 교육전담 전도사 수급의 어려움이 많고 처우와 근무 질에 대한 사고의 변화”

55노회 노회서기 “부교역자(부목사, 교육전도사)에 대한 대우(사례비, 배울 수 있는 환경)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66노회 증경노회장 “어려운 점은 재정, 부교역자 수급은 사례비가 높아야하는 점, 지방은 기피하는 점.”

60노회 노회서기 “전남 농어촌 지역으로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어렵고 요즘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교회적 상황도 어렵게 합니다.”

23노회 부노회장 “생활비는 각자 해결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자활을 결심한 목회자가 아니면 목회할 교역자 구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1개 교회는 폐교회하고, 다른 작은 교회는 최근 청빙받은 목회자가 떠나면 교회 폐교할 조짐이 있어 끝까지 남기로 했습니다.”

⑤ 교세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차원을 제외하고, 교회의 다른 요소들 때문에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문응답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먼저 사역부서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역자를 채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고,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교회가 노령화 되면서 더 이상 사역자가 필요없게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교인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에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26노회 노회서기 “교육파트는 아이가 3,4명이라 청빙이 어렵다.”

17노회 증경노회장 “농촌교회의 특징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사를 감으로 교회의 노쇠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40여명의 성도들로 자립은 하고 있지만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하는 현실입니다.”

46노회 노회서기 “학생회 감소의 문제, 고령화문제”

69노회 노회목사 “인천 석남동에 위치한 교회로 20여명의 성도가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는 1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변 노령화로 인하여 초등학교가 3,000명 규모에서 700명으로 주일학교 운영도 힘든상태이며 앞에서 말한 노령화로 성장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48노회 노회원 “코로나 이후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교회성도 10여명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으나 목회자 생활비를 5만원 밖에 받지 못하여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61노회 회록부서기 “지역은 제주이며, 성도 수는 개척하여 34년 만에 60여명 부흥하다 코로나로 현재는 20여명, 지역상 전도사님 등을 두기 어렵고, 교회부흥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세의 축소는 2021년 9월 6개 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고신, 기장, 감리회, 기성—의 정기총회를 마친 후 교세 통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총 684만 3436명으로 이는 10년전 868만 4,001명에 비해

무려 184만 565명(21.1%)이 감소한 것이다.¹⁾ 이는 단순히 교인수의 감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회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⑥ 시스템

마지막으로 노회 목회자들이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어려움은 시스템적 문제이다. 다시 말해 지역적으로 볼 때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회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지방신학교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노회 가입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신대원에서 목회자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많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역부족한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41노회 노회서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어려움, 지방신학교 신입생 거의 없음”

51노회 노회서기 “목회자 수급측면에서는 젊은 후배 목회자의 노회 가입률이 적어 앞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1노회 노회원 “제 개인적 생각은 목회자 수급을 따질게 아니라 목회자를 생각없이 양산만 해대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회자는 부목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다음 담임목회지로는 대부분 가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반강제로 개척을 합니다. 또 대부분은 개척에 실패합니다. 어떤 이는 후원처를 많이 얻어 어렵지만 목회를 이어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목회자 수급이 아니라 기존 목사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목사님들이 살아나면 그다음이 목회자 수급이 아닐까 합니다.”

2) 목회자 수급에 대한 해결 방안

노회 목회자들의 설문에 따르면 총 10개 영역에서 31개 세부항목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목회자들이 제안한 것들은 먼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총회 차원의 정책 수립과 노회 차원의 정책 개선 그리고 신대원 교육과정의 개선이다. 다음으로 전략적 제안으로는 교회 합병, 목회자 정년, 목회자 처우, 목회자 자질, 여교역자, 목회자 이중직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교회를 위한 교회적 계몽 사항을 제안하였다.

1) 최승현, “6개 주요 교단, 10년 연속 교세 감소...정점 대비 202만명 줄어” (New & Joy, 2002, 9. 28.)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40>

[표 3-2] 목회자 수급을 위한 해결 방안

영역	세부사항
총회 정책	인식의 확대와 전환, 목사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인턴십 혹은 의무 제도 도입, 장학제도의 실시, 계속교육 혹은 평생교육의 필요.
노회 정책	노회 인사관리 제도 실시, 목사 청빙에 관한 노회법 개정.
신대원교육 개선	다양한 목회현장실습 제도의 도입, 신대원 교육과정(커리큘럼)의 개편, 새로운 목회교육의 실시.
교회 합병	노회 간의 합병, 교회 간의 합병, 지역을 대표하는 동네교회 설립 운동.
목회자 정년	정년연장의 반대, 정년연장의 찬성.
목회자 처우	신학생의 처우 개선, 목회자의 처우 개선.
목회자 자질	자질 부족에 대한 총평, 사명감 부족한 목회자.
여교역자	여교역자의 지속적인 수급 방안, 여성 목사 안수 찬성, 여성 목사 안수 반대, 여교역자 발굴 방안.
목회자 이중직	이중직에 대한 이해, 이중직의 정당성 규명, 이중직의 범위 설정.
교회적 계몽	교회 이미지 쇄신, 부흥에 대한 갈망, 다음세대 목회, 출산 장려, 새로운 교역자 양성.

① 총회 정책

목회자 수급과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총회 혹은 교단 차원의 행정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총회적 차원이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 수급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단차원에서 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 혹은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수급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단 정치 운영방식과는 다른 색다른 개혁이 요구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교회 문제가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한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9노회 노회서기 “목회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총회차원의 지원대책 필요하며”

24노회 노회서기 “총회나 노회차원에서 수급문제를 이슈로 삼고 과제처럼 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리라 봄.”

43노회 회록서기 “목회자 수급의 문제는 현 교단정치와 노회정치를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회도 노회도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총회가 노회를 지원하고 노회는 시찰회를 지원하고 시찰은 지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되어야 합니다. 총회와 노회는 개척교회 작은교회를 세우는데 관심 없고 오직 정치에 함몰되어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인이 많아지면 사역자들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총회나 노회정책에 따라 교역자 수급 문제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51노회 노회서기 “시골 교회의 열악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총회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작은 교회 목회자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일차적으로 현재 작은교회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원해 주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작은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적 의무조항을 면제해 주는 소극적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작은교회이거나 목회자가 없는 시골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하거나, 도시교회와 지방시골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를 주기적 혹은 순차적으로 순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적 자원을 총회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72노회 회원 “생활비의 적정한 선으로 해결해 줌으로 목회에 대한 힘듦을 개선해 줄 필요”

8노회 노회원 “목회자 수급부분은 작은교회는 노회가 지원하지 못하면 총회에서도 절반정도 재정적 지원이 있게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9노회 노회원 “총회도 농촌교회에까지 은급비를 가져가려고만 하지 말고 은급비를 낼 수 없는 농촌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세례교인헌금도 농촌교회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28노회 노회부서기 “원로목사나 은퇴목사를 시골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파송하고 교단차원에서 생활비 지원”

47노회 노회서기 “일단은 신학교에 입학하는 인원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어려움일 것입니다. 광주신학교, 광신대학교가 전라남북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지원자들이 해마다 줄고 있고, 지원하더라도 고령자들이라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자체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총회가 정책적으로 순차적, 순환적 사역자 이동과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72노회 회원 “목회자 주기적 교환”

세 번째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강도사고시 및 목사 안수 전에 개척교회 혹은 작은교회 혹은 지방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턴십 제도나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앞에서 제시했던 곳에서는 사역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필수과정으로 앞에서 제시한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노회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안하였다.

71노회 노회서기 “총회는 지방에 소재한 교회 사역에 대한 시스템 마련 필요.”

60노회 노회서기 “총회적으로 농어촌 교회가 전도사를 구할 시 지원하는 제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턴제도를 제도적으로 세워 목사후보생으로 경험이 되게 하고 농어촌 교회의 전도사 수급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68노회 회록서기 ”교단차원에서 강도사 고시 자격과 목사고시 자격에 필히 의무적으로 교회지역연수와 함께 현장 사역에 대한 취득점수제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과 한 교회 장기사역자에 따른 점수제 시행. 그래서 몇 점 이상 되어야 강도사 시험과 목사고시 자격 부여하는 방향으로”

28노회 노회부서기 “교단이나 총신신대원 차원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개척이나 작은교회 부교역자 사역을 몇 년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신대원 졸업자를 작은 교회에서 몇 년 이상 사역하도록 하고 생활비 지원”

20노회 노회서기 “목사 인수를 받으려면, 지방에서 2년 이상 사역하는 것을 명문화시키고, 총신뿐만 아니라 부산성경신학원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자를 배출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도와 여전도사와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신대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총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전도사 사례비를 가지고는 신대원 학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개교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등록금 지원을 총회적으로 체계화하여 모든 신학생들이 무료로 신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58노회 노회서기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단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총신대학에서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 혜택이 있지만 총신신대원에서는 장학금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례비로는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점점 신학생들에게 예전처럼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68노회 회록서기 “교단차원에서 신학생 유치를 위해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하는 방향

55노회 노회서기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많아지면 좋겠고, 목회자가 되어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가 많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개척을 한다고 하면 노회나 총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72노회 회원 “구세군처럼 총회가 신학생의 처우를... 최소한 등록금이라도 총회와 노회가 감당하도록”

마지막으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한 것은 총회 차원에서의 목회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 사역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세미나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총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평생교육 혹은 계속교육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72노회 회원 “목회자 주기적 교육”

50노회 노회서기 “총회적차원에서 교육세미나를 통하여 성공적인 다양한 사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노회 노회원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는 목회자 계속 교육이 필요하고 개교회 차원에서는 목회자 생활 지원을 잘해줘야 합니다”

62노회 정회원 “목회자 재교육을 총회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노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27노회 노회서기 “목사 안수 이후에 평생교육개념으로 또는 담임목사 준비 차원에서 목사재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육할 것은 첫째 설교 업그레이드 비법, 둘째 교회 운영의 실제, 셋째 교회정치와 헌법입니다.”

58노회 노회서기 “목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희 교단 특성상 흔히 하는 말로 '각개전투'란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학생 때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개척을 할 때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면 노회상회비를 내라, 총회정책에 무언가 참여하라고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회차원에서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강도사, 목사안수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전이 제시 되도록 총회적으로 연구와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30노회 시찰서기 “쉬고 있는 목회자 재교육하여 교회 연결시켜 주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골교회나 목회자 은퇴로 인하여 무조건 문을 닫게 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고, 무임 목사 적극 재교육하고, 지원하여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임 전도사, 강도사 제도도 허용하여야 합니다. 시골 교회 담임으로 신학교 졸업 후부터는 적극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2노회 노회서기 “지금 MZ세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신학교육지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57노회 노회서기 “현재 노회 내에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 무임으로 계시는 사역자가 아직은 많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되 노회가 신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노회가 중재하거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43노회 회록서기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교육부서나 구역에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전도사 교육과정이나 여성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여교역자 과정이 교단차원이나 권역별 차원에서 만들어 주시면 교역자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② 노회 정책

다음으로 노회 목회자들은 총회적 차원에서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회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한 노회적 운영 전략은 개인적 차원의 목사후보생 관리이다. 이를 위해 장학금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목회영성 관리까지 입체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교육전도사의 사례비를 현실화하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표준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시행하는 제도적 개선을 개안하였다.

71노회 노회서기 “개교회나 노회는 장학금”

1노회 노회장 “노회적으로 목사후보생에 대한 관리차원으로 개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목회영성을 키워가도록 협력함.”

30노회 시찰서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역을 하지 않는 신학생들은 강도사 응시와 목사고시를 제한해야 합니다(감리교단처럼). 모두 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고, 총회와 학교에서 교단 교회와 적극 연결하여 사역 감당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례비는 노회에서 개교회 보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역의 표준화와 장학금, 사례비의 최저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한 노회적 정책은 노회 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노회법에 따르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회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현실에 맞춰 노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²⁾

3노회 노회원 “목회자수급은 노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회간 경계를 두지 않고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제도 개선”

6노회 총대 “향후 10년이면 교회는 많은데 교역자 부족으로 문을 닫는다든지 합병할 경우가 많아질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단은 총회헌법 제15조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에서 목사의 청빙 준비, 청빙 서식, 청빙 승낙, 청빙서 제정, 서약 변경,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에 관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목사가 담임으로 갈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노회에 담임청빙이 되도록(물론 검증된 분)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③ 신대원교육 개선

노회 목회자들은 현재 신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학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신대원 교육에서 현장사역에 대한 조항을 다양한 형태로 교과과정에 집어넣어 신학생들로 하여금 지방사역, 작은교회사역, 개척교회사역 등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커리큘럼)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신대원 재학생들의 교회사역 의무화” “목회자 수련과정과 실천점수 연계” “연간 4주 교회 실습” “현장실습과정” “교회 인턴 시무” 등 다양한 형태의 실천과목을 신대원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27노회 노회서기 “신대원 재학생들에게 교회사역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목사안수를 받기전에 교회현장사역을 반드시 4년하도록 해야 합니다(교육전도사 3년, 강도사 1년). 신학교육은 현장사역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학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58노회 노회서기 “첫째, 타 교단과 같이 목회자 수련 과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젊은 사역자들은 교회구조에서 불합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세대만하더라도 전도사나 부목사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 물론 그 시대에도 불합리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배움의 자세로 사역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라리 알바를 할지언정 이 구조를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실천점수로 하더라도 지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도사와 목사안수를 받는 사이에 단독목회 몇 년, 혹은 교회에서 부목사 몇 년 이상, 농어촌 교회 몇 년 이상 이런식으로 규정을 두어서 개교회를 섬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교회들은 아예 수급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8노회 노회부서기 “신대원생은 의무적으로 개척이나 전도를 일정기준이상 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총회나 해당노회 차원에서 지원함”

39노회 노회원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 실습으로 교회를 돕고 현장감을 확보하는 기간을 연간 4주 정도 두면 좋겠습니다.”

43노회 회록서기 “신학생들을 추천하고 신학교에 보내고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학생들이 대형교회만 쏠리는 현상에서 중형과 작은 교회를 경험하고 개척을 배울 수 있는 개척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감리교단처럼 신학생 인턴 과정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노회 노회서기 “현장실습과정”

50노회 노회서기 “실천신학적으로 교육과정 가운데 현장실습과 같이 교회사역을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노회 노회원 “농어촌미자립교회에 실습사역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제 프로세스 강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60노회 노회서기 “다만 신학교와 노회 그리고 교회와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반 대학과 업체가 긴밀하게 연계하는 신학협동체제를 갖추는 것 같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신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총회적 차원에서 전도사 2년 내지 3년 교회 인턴 시무를 필수조건으로 농어촌 교회 시무 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62노회 정회원 “총회나 신학대학원에서 의무적이나 수련 과정으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교회도 일부 부담을 하며 총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

70노회 회원 “어쩌면 신학생들의 의무과제로 부교역자 생활을 요구한다면 그나마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봉사가 의무화 된다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작은 교회에서의 활동을 의무화한다면 되죠.”

71노회 노회서기 “지방에서 사역하는 것을 담임목회를 하려는 이들에게 필수 경력으로 삼게 하든지 총회에서 사례를 일부 지원하던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노회 노회장 “담임목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총회가 부목사내지 전임사역자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 담임목사 지원을 하려할 때 지방에서의 사역을 의무사항으로 한다든가, 교육전도사의 경우 지방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실천신학 부분에서 학점에 어드밴티지를 주든가 하는 등의 일들)”

15노회 회원 “총신신대원 전도사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사역 인센티브 주기”

그뿐만이 아니라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한 두 번째는 보다 나은 신대원 교육을 위하여 신대원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학교육이 말씀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중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교과내용을 첨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38노회 노회원 “시대 흐름을 알아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

31노회 노회원 “총신의 신학이 그대로 목회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총신이 아직 목회의 현장과

다소 이질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조직신학은 아주 기본이고 목회현장에서 설교로 가르침으로 계속 선포되도록 현장감있는 신학의 내용이 잘 구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총신을 나와도 설교를 들으면 총신의 특징이 안 나옵니다. 이걸 연구하여과목으로 정하고 가르친다면 아주 발전이 있을 겁니다.”

37노회 노회서기 “신학보다는 성경중심, 말씀중심, 문화와 삶의 심화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56노회 노회서기 “현장 목회에 필요한 과목. 많이 개설”

62노회 정회원 “인간에 대한 이해, 상담, 코칭, 리더십, 성경 연구..”

66노회 증경노회장 “신학교육은 물론이고 인성교육, 인간관계, 그리고 보수적인 올바른 역사관”

52노회 노회장 “SNS사용방안, 성문제 예방 교육”

26노회 노회서기 “적극적인 사랑실천 교육.”

40노회 노회회원 “목회자의 인성교육과 상담”

41노회 노회서기 “사회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신학 확대”

마지막으로 노회 목회자들이 제안한 것은 신대원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목회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목회전략을 훈련하기 위하여 현장사역자들을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7노회 노회서기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의 인원도 모집이 힘들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겠다는 종들의 헌신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교수님들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사역자들 배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1노회 노회서기 “목회현장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커리큘럼에 넣어 교육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해봅니다. 지방에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이즈있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사용하는 방법을 의견으로 제시해봅니다.”

27노회 노회서기 “신대원 교수들 중에 현장목회자들을 겸임교수로 많이 세워서 신대원생들이 교회현장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53노회 노회서기 “현장감이 중요한데 교수들보다는 소형교회나 중소형교회 담임목사들과 토의와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62노회 정회원 “실제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상담, 코칭, 리더십, 성경 연구.”

④ 교회 합병

현재 12,000개 교회 수, 그리고 300만 교인 수를 말하는 교단 보고와는 달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교회의 현실은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가 80%를 뛰어넘었고, 몇몇 대형교회를 배제하고는 대부분이 소규모 작은교회라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는 20명 미만의 기도처들이 매우 많은 교회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회 목회자들은 교회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노회 간의 합병, 교회 간의 합병, 더 나아가 동네교회의 설립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 제안이라 할 수 있다.

58노회 노회서기 “앞으로 노회와 노회가 합병을 하고, 교회와 교회가 합병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욕심을 버리고 백년대계를 준비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43노회 회록서기 “무엇보다 인구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교인숫자도 줄어들 것이므로 교회 폐쇄와 교회합병하는 교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회 합병이나 교회폐쇄에 대하여 전략을 수립하면 교역자 수급문제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노회 노회장 “헌법적으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기도처로 불려야할 장년 15명미만의 교회를 각 지역의 대교회나 중교회와 합병하게 함.”

74노회 부노회장 “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 단순히 목회자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 쏠림이나 농어촌 기피는 결국에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다.”

10노회 노회서기 “시골교회는 서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9노회 노회원 “교회 연합과 통합, 개교회주의에서 연합과 화합은 목회”

51노회 노회서기 “교회사이즈가 비슷한 교회끼리 합병하는 전략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12노회 노회서기 “은퇴전 교회 합병과 성장후 분립”

17노회 증경노회장 “자체적으로 부흥이 가능한 교회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2개 내지 3개교회가 합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7노회 노회서기 “교인100명 미만의 교회는 10년 후부터 담임목사 정년을 만75세로 하든지 정년 자체를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년 후부터는 작은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해도 목사님들이 없을 것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2만교회 운동을 할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에 매진하고, 메가처치를 지양하는 운동을 펼쳐서 교인 100명~300명 규모의 지역중심의 동네교회 5,000개 또는 1,000개 운동을 해야 합니다.”

⑤ 목회자 정년

정년에 대한 노회 목회자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반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찬성이다. 먼저 반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노회 노회서기 “목회자 은퇴 연령을 연장한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58노회 노회서기 “총회적으로 목회자 정년을 늘리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반대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가진 게 많은 목사님들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본다. 이래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이제는 실제로 노회를 중심으로 작은 교회들의 소리를 들어 보고 종합해서 대책을 강구해야만 교단 탈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은 없다.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가진 것이나 잃을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모아서 대책을 세워나가길 바란다.”

다음은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노회 목회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0노회 노회서기 “은퇴시기를 좀 더 유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노회 노회서기 “목회자 은퇴 연령을 연장해서라도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노회 노회장 “목회자의 은퇴 시기를 5년 정도 미룬다.”

36노회 회원 “시골, 도시개척교회는 은퇴연장”

27노회 노회서기 “목회사역은 특별한 직군이기에 때문에 정년을 5년 정도 연장해야 합니다. 조만간에 교인 100명 미만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미 작은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은퇴해야할 무렵에 우리교단을 탈퇴하여 정년이 없는 타교단으로 갑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3노회 부서기 “그러나 농어촌과 미자립교회는 은퇴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한 영혼이 있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다”

71노회 노회서기 “세례교인 10명 이하인 교회에는 목회자가 75세까지 설교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주고, 총회에서 사례비 지원을 일정부분 해주면 좋겠습니다.”

⑥ 목회자 처우

목회자 처우에 대한 노회 목회자들의 의견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매우 구체적인 실례들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노회 목회자들은 가능하다면 신학생들이 사역에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대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7노회 노회서기 “신대원 등록금을 모든 신대원생들에게 전액장학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4노회 회록서기 “정년 연장보다 신학생 지원을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두 번째로 현재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가 현실화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소규모 교회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례비,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이 공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교회의 목회자 수를 조정하고, 그들에 대한 봉급체계를 수립하며, 교회간의 연계를 통해 적정한 처우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였다.

40노회 노회회원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례비”

73노회 노회서기 “담임목사: 지방은 젊은 부교역자들이 기피하고 농어촌 교회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심각하므로 교회 운영 및 교역자 생활비 부족이 문제이므로 재정 지원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령화, 인구소멸, 인구의 도시 집중을 감안하여 목회자 적정 수준의 수를 결정하여 수급,”

5노회 노회서기 “도시교회에서 파송하는 농어촌목회자—사례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13노회 친교부장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에 손 잡아 주고 일어설 수 있게 협력하는 것”

42노회 노회서기 “교회에서 목회자 예우를 현 시대에 맞는 예우가 우선 필요하다.”

5노회 노회서기 “목회자의 생활 안정,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 교육공무원식 사례와 보험제도(부교역자를 위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함) 노후보장, 연금제도활성화,”

6노회 총대 “사례비 증감이 절실합니다. 전임 경우에는 16개월로 최저생활비는 되어야하며 호봉 적용(1호봉10만원) 가족수당 적용하며 5년차 이상 사역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격려가 필요합니다.”

14노회 노회원 “사역에 있어서 가정의 생활비, 교회 월세, 전도비, 기타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은퇴 교역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강도사 배출 또한 환경과 미래가 보장되어야만 그들이 안심하고 사역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 목회 경험과 그리고 물질적으로 아끼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되어 연합하여 물신양면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고 구제와 선교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노회 증경노회장 “1. 자녀교육을 위한 장학금제도 2. 목회자의 연금제도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18노회 노회서기 “시골교회의 재정적 자립과 자녀교육에 대해 문제 해결”

⑦ 목회자 자질

노회 목회자들은 현재 목회자들의 자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부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 역량까지 폭넓게 지적하였다. 먼저 목회자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10노회 노회서기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깊이 있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목회의 실천적인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1노회 노회원 “이타심 부재로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명감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65노회 회원목사 “소명과 사명의식이 약화되어가고 있음”

59노회 노회서기 “현재 신학생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사명감이나 헌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해졌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했으니 신학생들의 생각이나 삶의 수준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이나 헌신에 대한 부분은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해져야 더욱 어려워지는 목회 현장에서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73노회 회원 “사명감의 고취가 확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면접 기능도 강화... 그러나 지방화로 서로 교류가 불가하게 하는 것은 반대함”

75노회 장로부노회장 “목회자의 사명의식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필요함”

19노회 노회원 “급여가 중요하지만 사명감이 충만한 신학생 배출이 필요합니다. 교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해야 합니다. 현재 신학생들은 사명감이 약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사명감 고취와 경건훈련 강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20노회 노회서기 “현재 신학생들은 개방적이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의식이 약하고 소명자라는 생각보다는 근로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성직을 직업의 한 부류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직자의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이 경건훈련을 제대로 받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29노회 노회원 “신학교에서 우선 소명감있는 교역자 정확히 확인. 스펙과 엘리트 주의를 원하는 교회의 사고방식 문제. 사례의 현실성. 복지 계획”

25노회 노회서기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이지만 이들의 영적세계나 정신세계에 대하여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와 함께하고 있다면 큰 걱정임. 교회들마다 사명감을 부여하여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도록 교회의 역할이 급함.”

26노회 노회서기 “담임목사 관점: 열정과 소명의식 우선필요”

47노회 노회서기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사역자들의 순종보다는 자아가 강한 세대입니다. 목회자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실천신학을 어느정도는 배워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듯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역은 파트와 주일사역에 국한하려는 사역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 문제이겠지만 사명고취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입니다.”

53노회 노회서기 “본교단 신학생의 많은 수가 사명감이 없다. 타교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54노회 노회서기 ‘사명감을 불태워 주고 학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⑧ 여교역자

노회 목회자들은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교역자에 대한 평가를 높이하면서 그들이 주로 심방과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교회사역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교역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교역자의 지속적인 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먼저 하였다.

10노회 노회서기 “부목사보다 여교역자 수급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성도들을 훈련해서 교역자의 역할을 맡기는 형편입니다.”

6노회 총대 “(여교역자 수급을 위해) 총회에서 온라인으로 신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전도사 경우 지방은 주부인 경우 공부하기가 힘들어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여교역자 수급은) 교회 내에 충성된 젊은 직분자를 신학공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된 분을 파트나 심방사역자로 세우는 대안입니다.”

16노회 노회장 “여교역자의 수급을 위해 양질의 지방신학교를 통한 육성”

하지만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좋은 여교역자들이 타교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노회 목회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25노회 노회서기 “교단에서 목사 안수 허락이 안되니 타교단이나 적은교단으로 가서 안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교역자의 우대나 사례에 대한 특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54노회 노회서기 “여교역자들이 타교단으로 가지 않도록 빠른방안(안수) 필요.”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노회 목회자들 중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찬성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72노회 회원 “여목회자(목사 안수) 찬성”

65노회 회원목사 “여목제도 도입 필요”

16노회 노회장 “교육 및 심방에 있어서 여전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 여성목사안수 허락”

7노회 노회원 “여성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 사역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47노회 노회서기 “교단의 장벽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교단 여교역자 지원숫자를 봐도 본 교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8회기 총회에 총대로 참석하면서 첫날 여교역자들에게 강도권 허락을 했다가 얼마 후 바뀌었는데..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총회에서 강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할 듯 합니다.”

62노회 정회원 “여교역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안수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면 안수하는 교파나 교단을 이단으로 여겨 교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류하고 있으면서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30노회 시찰서기 “여자 목사 허용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강도권도 허락하고, 평신도도 여자 장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 목회자들 중에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4노회 회록서기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여교역자에게 목사안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9노회 노회원 “우리 개혁교회는 여교역자를 성경적인 관점안에서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키워야 하고요. 다른 교단(여성안수문제)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지만 대표는 지금처럼 남자가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63노회 부서기 “여목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다. 여교역자를 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불합리하다 우스운 얘기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여교역자를 발굴하고 동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5노회 회원 “여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 여성 교회사역자 자체 교육 활용할 것”

43노회 회록서기 “여교역자 수급이 어려울뿐 아니라 사역자가 와도 오랫동안 사역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여자성도들을 여교역자과정을 이수하여 교회사역자로 임명하면 교회 입장이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⑨ 목회자 이중직

노회 목회자들은 현재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정당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이중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8노회 노회원 “이중직에 대한 고민”

15노회 노회원 “목사 이중직을 장려하고 재능기부”

49노회 노회서기 “목사 이중직은 당연히 허락해야 함”

30노회 시찰서기 “이중직을 푸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직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제도화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8노회 노회원 “이제 한국교회도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미자립교회 사역은 직장생활과 겸직해야 될 것임을 의견 제시합니다”

⑩ 교회적 계몽

노회 목회자들은 교단의 교회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였다. 특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교단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였고, 더 나아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9노회 노회원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건강하고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요. 인격적인 목회자가 되어야지 군림하려하거나 이용해먹으려고 하서는

38노회 노회원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 회복”

1노회 노회장 “총회에서 반기독교적인 흐름에 대한 교단적 대응이 일반 언론에 노출되어 알려지게 함으로 교회 청년들이 반기독교적인 흐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돕는다.”

37노회 노회서기 “교회에 대한 세상적 관점은 부정적이라 이미지 개선과 기존 목회자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개교회 중심과 숫적 성장으로 영주화, 귀족화 되어가는 성공(?)신화가 목회자와 교회에서부터 소멸되어야 하며 작은 교회도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임을 노회와 총회차원에서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47노회 노회서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역자들이 배출되도록 전국교회 목회자 재교육,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총회가 앞장서서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1노회 노회서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음세대의 영성 회복에 전심전력”
26노회 노회서기 “교회에서 사명자 헌신의 밤 예배를 기획하거나 단기선교훈련 통해 적극적으로
양성 추천 필요”

27노회 노회서기 “다음세대에게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것인지를 담임목사
님들과 총회가 앞장서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합니다.”

30노회 시찰서기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 미흡함. 총회 교육 면려회 30년동안 수련회가 변한
것이 없음(사람도 프로그램도). 질이 너무 떨어짐. 다음 세대 콘텐츠 연합 사역,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함. 중고등부 청년부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제자
훈련, 성경공부 소그룹 프로그램이 장년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 대학도
노회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8노회 노회원 “목회자 수급부분 보다 출산율 성장에 신경써야 할 것 같고, 은퇴는 수급문제와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담임목회자 은퇴를 자연스럽게 두면 한 십여 년 정도는
길어질 수도 있으나 결국 은퇴할 수 밖에 없기에 정년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으로 보며 지금 한국교회는 은퇴에 집중하지 말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해
야 십년 후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여깁니다”

52노회 노회장 “세습차원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어받도록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23노회 부노회장 “농어촌 교회는 인구 소멸과 함께 소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성도로
교회를 목회할 교역자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대책 중에는 장기근속한
공직자와 교직자 등의 은퇴가 가까운 성도를 조기은퇴하게 하여 연금으로 생활비
를 조달하여 목회할 수 있도록 대형교회에서 추진하여 준다면 희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나아가며

한 노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설문지에 제출하셨다.

58노회 노회서기 “총회적으로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강도사 목사로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총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목회자로 성장하고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노회적으로는 목회자후보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단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노회에서부터 젊은 목회자후보생들과 목사님들과 대화

를 통한 재교육과 소명과 소속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교회적으로는 담임목사 1인 체제가 아니라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서로 인격적으로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전도사와 부목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하며,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현장을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신대학원에 부탁하는 것은 목회자 박사과정을 반대한 사람으로서 학위과정을 만들기보다 있는 신학과정을 통해서 좀더 세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고, 목회학 박사과정이 하나의 도피처요 스펙을 쌓은 과정이 아니기를 바래본다.”

이상과 같은 글을 읽으며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빨라야 하며, 개혁의 방향은 정말 올바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미래정책위원회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연구의 결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연구주제 2]



목회(사역)자 수급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 신학생을 중심으로

(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주종훈 교수)

신학생 현황과 기대에 따른 목회자 수를 위한 정책 마련 과제와 방향

: 총신대 신학대학원 재학생을 중심으로

주종훈 교수

(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I. 들어가는 글

21세기 이후 교회 그리고 목회와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정체 현상이다. 교회 성장의 정체,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정체, 그리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의 정체 등은 오늘날 기독교 사역의 주된 과제다. 그런데, 교회 성장, 제자도,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의 다양한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가 위임한 리더로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회 사역이 목회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목회자의 섬김과 돌봄을 통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장과 신앙 형성 그리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곧, 복음을 위한 교회 사역의 모든 과정에 목회자는 특권과 권위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의 구분된 책임과 과제를 부여받는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의 형성이 교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¹⁾ 그런데, 최근 교회 사역의 현실에서 더욱 선명하게 주어지는 과제는 다양한 사역을 위한 목회자의 수급과 관련한다. 목회자의 교육과 형성 그리고 교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우선 목회 사역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의 참여로부터 가능하다. 많은 수의 목회자를 무조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선교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을 위해 일정 수의 목회자는 반드시 요구된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이슈는 교단별 상황과 사역의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다. 교단 산하 지역

1) 교회 사역의 주된 과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동성을 이끄는 교육 방식보다 목회자 자신의 형성에 좌우된다는 것이 팬데믹 이후 가장 최근의 목회리더십 영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이다. Tod Bolsinger, *Tempered Resilience: How Leaders Are Formed in The Crucible Change* (Downers Grove: VIP, 2020) 참고.

교회 목회자 수의 부족, 신학생 사역자를 포함한 부교역자의 수급 부족, 교회 개척 목회자 수의 감소, 선교 사역자의 헌신과 참여 부족, 전문 영역의 목회자 수급 부족 등 다양하다. 그런데 최근 목회자와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현실은 특정 영역에서의 사역자 부족 현상을 넘어서서 교회, 선교, 전문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목회자 수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목회와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위한 신학대학원 지원자의 감소, 선교 지망생의 감소, 지역 교회 부교역자의 감소 등은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교회 부교역자 감소와 관련해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육전도사 지원자 상황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조사하고 같은 해 11월에 보고한 분석과 통계에 따르면, “담임목사 대다수(88%)가 ‘지원자가 없다(아예 없다+적다)’고 응답했고, 그중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절반(49%)에 육박한다.”²⁾ 같은 조사에서 전도사를 대상으로 목사 안수 의향과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67%가 목사 안수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1%가 ‘잘 모르겠다’거나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³⁾ 이러한 응답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⁴⁾, 중요한 현실은 목회자 수급에 대한 위기가 심각하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회자 수급 부족의 현실을 단지 시대의 흐름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 또는 종교와 신앙의 변화된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회피적 대응이다. 오히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기반을 둔 적실성 있는 정책 마련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 글은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대응 마련과 적실성 있는 정책 제시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사역 관련 인식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1월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졸업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교회 사역에 대한 참여 여부를 비롯해 사역과 관련한 인식과 기대 등을 설문조사의 방식을 통해 정리하고 분석한다. 현재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 수급에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교육전도사와 관련한다. 교육전도사 대부분은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역 현황과 사역에 대한 인식 조사는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교단의 정책 마련과 신학대학원 교육의 구체적인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216호)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2 (2024년 2월 16일 접속)

3)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216호)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2 (2024년 2월 16일 접속)

4)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분석과 통계에 따르면, 목사 안수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목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20%)’와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19%)’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목사로서 힘든 삶을 살 자신이 없어서(14%)’, ‘교회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11%)’ 등의 순이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216호)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2 (2024년 2월 16일 접속)

II. 신학대학원 재학생 사역 현황과 목회자 수급 관련 인식도 조사와 분석

1. 신학대학원 재학생 사역 현황과 목회자 수급 관련 인식도 조사 질문 방법과 내용

이 글은 목회자 수급의 한 영역인 교육전도사의 사역 현황과 인식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집중한다. 이 조사와 분석의 대상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다. 한 교단의 신학대학원이 한국교회 전체를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설문과 통계의 방식을 사용해서 주어지는 결과와 분석은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한 참조와 고려 사항으로 간주하기에는 충분하다.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과 분석은 총신신대원 학생들의 사역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구글 폼으로 작성하고 2024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게 했다. 2023학년도 기준으로 천여 명의 재학생 가운데 설문에 응한 수는 258명이다.

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질문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우선 첫째로, 기본 현황에 관한 것으로 학년, 성별, 그리고 사역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로, 사역 현황 분석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 그 지역과 교회의 규모를 확인한다. 셋째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인식 파악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도전과 어려움, 교회(담임목회자)를 향한 기대, 그리고 교회 사역과 관련한 신학대학원 교육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 수급과 관련하여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단과 교회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향해 갖고 있는 기대와 의견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에 포함했다.

2. 신학대학원 재학생 사역 현황과 목회자 수급 관련 인식도 설문에 대한 정리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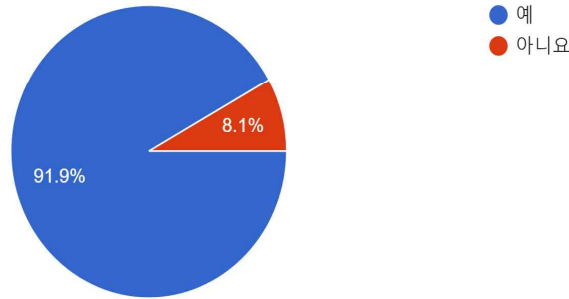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의 질문 카테고리에 따라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사역 현황과 인식도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은 신학대학원생들의 사역 여부 확인과 사역의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인식도 조사로 구분된다.

1) 설문대상자의 기본 현황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한 내용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신학대학원생들의 학년과 성별 그리고 사역 여부이다. 설문에 응한 258명의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1학년은 87명(33.7%), 2학년은 105명(40.7%), 졸업을 앞둔 3학년은 66명(25.6%)이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217명(84.1%)이고, 여학생은 41명(15.9%)이다. 전체 설문에 응한 신학대학원 학생들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는 237명으로 91.9%에 해당하고, 나머지 21명에 해당하는 8.1%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자들의 교회 사역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1.3.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258 responses



〈표 1〉 교회 사역 참여 여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신학대학원생들의 상당수는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교회 사역 참여 비율에 관한 결과가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전도사의 목회자 수급 부족이 단지 신학대원생들의 사역 회피 또는 주저에 따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곧,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수급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로 신학대학원생들이 사역을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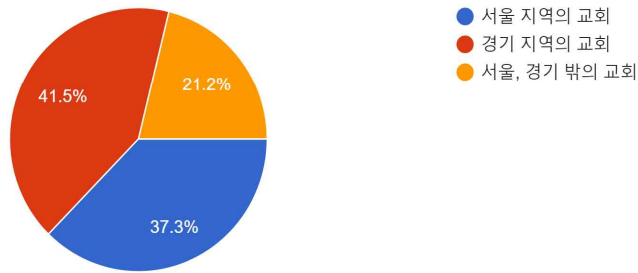
2) 사역 현황에 관한 정리와 분석

기본 현황에 이은 다음 설문조사 내용은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경우,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과 규모를 우선 확인했다. 먼저,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하다. 31명의 응답자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학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19.4%)이고, 다음은 “원하는 교회로부터 사역 요청을 받지 않아서”(12.9%)이고, 세 번째는 “적합한 교회나 사역 부서를 찾지 못해서”(9.7%)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재정적인 이유 곧 교회 사례비의 부족, 다른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학대학원 재학 중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학업과 사역 사이의 균형이 재정적인 요인보다 더 우선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 결과가 신학대학원생들이 재정적인 측면을 사역의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 이후 제시한 질문 가운데 지속적으로 더욱 충실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대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학대학원 재학생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했다. 우선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을 확인했다.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 분포는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교회가 37%, 경기 지역의 교회가 41.5%, 그리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가 21.2%에 해당한다. 설문조사의 사역 교회의 지역에 대한 질문(2.2.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은 어디입니까?)에 대한 답변의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현재 교회 사역을 하는 경우)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236 responses



〈표 2〉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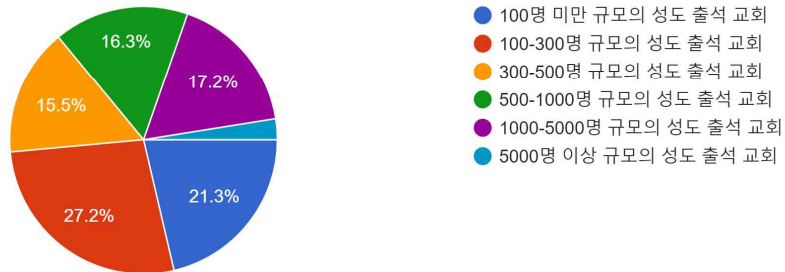
물론 전체 재학생의 교회 사역에 대한 지역의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학대학원생들의 교회 사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지역에 대략 80%에 집중하고, 나머지 약 20%를 조금 넘는 비율만 수도권 밖의 지역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학대학원 재학 중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구심점을 갖고 생활하는 특징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서 교육전도사를 수급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어서,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를 확인했다. 현재 신학대학원생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교인 규모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전체 가운데 27%(65명)로 가장 많았고, 100명 미만의 규모가 21.3%(51명),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규모가 17.2%(41명),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규모가 16.3%(39명), 그리고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규모가 15.5%(3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에 대한 질문(2.3.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는 현황을 비율로 제시하는 도표는 다음과 같다.

사역하는 교회의 지역에 대한 다음의 도표에 따르면,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가 교인 수 500명 이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교인 수 500명 이상의 중대형 규모에서 사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300명 미만의 규모에서 사역하는 비율이 48.5%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율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교회 사역을 위한 선택과 결정에서 교회 규모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2.3.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39 responses



〈표 3〉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

3) 목회자 수급 관련 인식도 현황과 분석

교육전도사의 사역 현황에 이어 이번 설문에서 확인한 것은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생들 갖고 있는 의견과 교회 사역의 도전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를 확인하는 것은 교단이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과정이다.

우선 가장 먼저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생들이 교회 사역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사역을 위한 교회 선택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담임 목회자(와 다른 교역자)의 인품'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36.9%(94명)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교회의 명확한 사역 방향성 제시'가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26.3%(67명)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 사역을 위한 선택을 위해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 '적절한 처우(학비 지원과 사례)'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16.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네 번째 기준이 '담임 목회자의 설교'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12.9%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교회의 적절한 규모와 안정성'을 사역의 선택 기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3.9%이고, '교회 위치'를 사역 선택의 기준으로 간주한 비율도 똑같이 3.9%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목회 사역을 위한 교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55 responses



〈표 4〉 목회 사역을 위한 교회 선택의 기준

위에서와 같이 교회 사역을 위한 신학대학원생들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회자의 인품과 사역과 관련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담임 목회자의 인품과 설교 그리고 사역의 분명한 제시가 교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6.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사역에 대한 처우와 교회의 위치를 교회 선택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모두 합쳐도 20%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교회 사역을 통해서 받게 되는 사례와 학비 지원과 같은 처우와 근접성 곧 교회의 위치는 중요하지만, 교회 사역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담임 목회자의 인품과 설교 그리고 사역 비전을 통한 배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서울이나 수도권 밖에 위치하더라도 담임 목회자의 인품과 설교 그리고 사역 비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면 교회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신학대학원생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두 번째로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교육전도사로서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고충이나 도전을 확인했다. 교회 사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 도전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한 고충 질문은 단지 목회자 수급을 위한 해결 제시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 마련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신학대학원생들이 갖고 있는 사역의 가장 큰 고충은 '사역의 과도한 요구와 학업 사이의 균형 유지'가 전체 응답자의 37.8%를 차지했다. 두 번째 고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과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16.1%를 차지하고, 세 번째 고충은 '사역을 위한 소명과 자신의 사역 역량 부족'이 전체 응답자의 15.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사역을 위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주어진 요인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역 요구'가 13.8%로 나타났고, '담임 목회자(와 다른 교역자들)의 인품'이 9.4%로 주어졌다. 이러한 통계 내용 곧 신학대학원생들의 사역 참여를 위한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목회 사역 참여를 위한 도전과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4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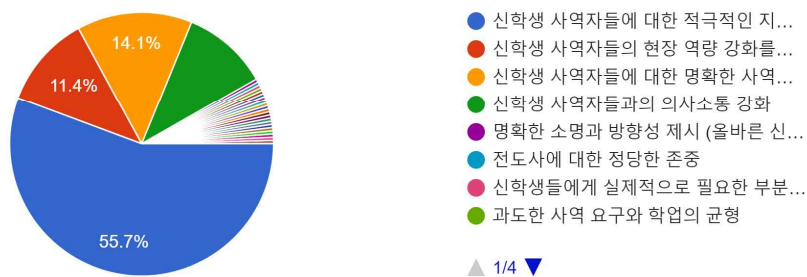
〈표 5〉 목회 사역 참여를 위한 도전과 어려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학대학원생들이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은 사역과 학업의 균형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분명하게 주어지는 사역에 있다. 사역 분량에 따른 학업 집중의 어려움과 명확하지 않은 사역 요구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인품으로 인해 주어지는 도전과 어려움도 9.4%에

해당한다. 이것은 담임 목회자의 인품과 사역 관련 요구에 따른 관계 방식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 사역에서 주어지는 도전과 어려움은 신학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업 분량의 과도함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사역의 분량이 과도하게 주어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주관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회 사역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명확한 업무 분담이나 구분이 쉽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단체와 같은 행정 또는 생산의 업무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⁵⁾ 이와 더불어, 목회 사역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답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적 지원'이 전체 응답자의 16.1%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목회 사역을 위한 교회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처우와 대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동일하게 16.1%였다. 이처럼 목회 사역을 위한 우선적 고려 사항과 도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재정적 지원보다 담임 목회자의 요구에 의한 사역의 내용과 분량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격적 관계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회 사역과 관련한 현실적 도전 가운데 '사역을 위한 자신의 소명과 역량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15.4%라는 점은 신학대학원 교육과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목회자 수급을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과제에 대한 신학대학원생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신학대학원생들이 교회로부터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지원)'가 전체 응답의 55.7%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전도사들에 대한 '명확한 사역 과제 제시'가 14.1%를 차지하고, '현장 사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11.4%를 차지한다. 또한 교회로부터 '신학생 사역자들과 의사소통의 강화'를 기대한다는 응답도 10.6%가 나왔다. 신학대학원생들이 사역을 위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내용을 정리한 도표는 아래와 같다.

3.3. 교회에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5 responses



〈표 6〉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교회가 신경 써야 할 과제

5) 교회 사역의 특징에 따른 도전과 어려움은 일반 기업이나 회사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목회 사역에 대한 현실을 분석한 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목회 사역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복잡성과 기준 제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Charles Foster et al., *Educating Clergy: Teaching Practices and Pastoral Imagination* (Stanford: Jossey-Bass, 2006), 20-39 참고.

위 도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목회 사역을 위해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은 단지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사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명확한 사역 과제 제시와 훈련 그리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신학대학원생들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교육전도사를 단지 교육 부서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체이자 책임 있는 사역자로 간주하고, 존중하고, 그에 부합한 훈련과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는 것이다. 위 도표에 나타난 네 가지 주요 기대 사항 외에 개별적으로 답변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학 수업과 교회 사역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역지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무조건 사역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교회 행정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훈련받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 교육을 담당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에 대한 신학대학원생들의 인식을 확인했다. 신학대학원생들이 목회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신학 교육 기관이다. 신학대학원은 교육 기관으로서 편의를 갖춘 시설과 충분하고 적절한 자료를 구비하고, 소명에 따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교과 내용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교단과 교회와의 연계성을 구축해야 하며, 교육의 직접 참여자로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네 개의 영역 가운데 신학대학원의 ‘교육 방향과 내용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교단과 교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는 비율이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학교 시설 확충과 다양한 신학과 목회를 위한 자료 구비’를 기대하는 응답이 전체의 18.8%를 차지한다. 이어서, ‘소명과 사역의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기대하는 비율이 17.6%로 나타나고, ‘사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와 학생 사이의 멘토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16.5%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사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 과정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별적인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신학대학원생들이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에 갖는 기대를 보여주는 내용의 도표는 다음과 같다.

3.4.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사역자) 수급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애써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5 responses



<표 7> 목회자 수급 관련 신학대학원을 향한 기대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생들이 신학대학원에 갖는 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과 연계된 교육 내용과 방식에 있다. 교육 내용과 방향, 소명과 사역의 역량을 위한 훈련,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구축과 같은 기대 사항 이외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나머지 약 9%의 답변은 거의 '성경에 기초한 신학 교육의 강화', '현장을 반영하는 교육', '교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내포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신학대학원생들은 성경의 본질을 담아내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신학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단지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 교육을 기대한다. 이러한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신학대학원생들이 교육과 사역의 과정에서 교회와 신학대학원 사이 어느 곳에도 깊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애매하고 느슨하게 연결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다.

4) 목회자 수급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신학대학원생의 자율적 제안

이번 설문조사에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교단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위해 신학대학원생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의견을 자율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5명이 답변했고, 이 숫자는 신학대학원 전체 재학생의 약 10%에 해당한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자율적인 의견과 건의 사항은 교회와 학교뿐 아니라 교단을 향해 신학대학원 재학생이 갖고 있는 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다양한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목회자 수급을 위한 교회, 학교 그리고 교단을 향한 기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명료하게 파악이 된다. 첫째,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생들이 교회와 담임목사를 향해서 갖는 기대는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 부교역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대우 그리고 사역 비전의 명확한 제시와 공유를 통한 동역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 교단 내 모든 교회가 요구하는 교육전도사를 충족할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되지만, 지역 교회와 담임 목회자가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교육전도사를 단지 3년 시한의 한시적 사역 도구로 간주하기보다는 교회 사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지원하면 교회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사역을 기꺼이 희망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의 선행 질문(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에 관한 질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담임목사의 명확한 사역 방향 제시를 기대하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이것은 신학대학원생의 경우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의 분명한 사역 방향을 통해서 목회를 배우고자 하는 견습생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향해 갖는 기대는 주로 신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학대학원에서 성경과 교리 중심의 교육을 지속하되, 모든 교육의 방향과 가치에 좀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의 자율적 답변에서 신학대학원 교육 방향과 가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신학 교육과 사역에 좀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 과정의 구성이다. 교육전도사의 사역 과정에서 현대 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이 질문으로 제기되는 데, 이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에 기초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 자료들을 공급해 줄 것을 기대한다. 곧, 교회와 학교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학 교육이 사역을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사역과 관련한 이론과 원리 그리고 대응 방식을 공급받는 중심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셋째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생들이 교단을 향해 갖는 기대는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교단이 개 교회에 좀 더 개입하고 제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 설문 응답에 따르면,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교회의 비전이 분명하고 담임목사의 인품이 존경받을 수 있지만 사역하고자 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교회로부터 직접 모든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교단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교육전도사 사례나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꺼이 교회 사역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 수급을 위해 교회가 대부분 교육전도사에게 사역의 능력이나 은사를 요구하지만,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사역의 역량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경험한다고 고백한다. 신학대학원생들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부서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들을 교단 차원에서 공급해주고, 그것을 현장 사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교육 분야 사역의 프로그램과 자료 공급은 교회 사역의 접근과 참여를 위해서 교단으로부터 기대하는 실제적인 영역이다.

III. 신학대학원생들의 설문조사에 기반을 둔 목회자 수급 정책의 과제와 방향

목회자 수급은 교단의 목회자 양성과 배출 방식, 정년 관련 규정, 노후 보장, 신학생 수급과 교육, 교회의 사역 환경과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교단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위에서 분석한 교단의 목회자 수급을 위한 신학대학원생들의 현황과 도전 그리고 기대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의 교회 사역과 관련한 현황 그리고 목회자 수급과 관련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주어진 내용을 기초로 교단에서 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과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수급을 위해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전도사 사역을 위한 처우 개선을 교단이 좀더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외적으로 신학대학원에 지원해서 입학한 후 수학하지만, 교단의 관점에서 보면 교단 목회자 및 다양한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해 신학대학원에 위탁한 대상이다. 따라서, 신학대학원생이 교육받는 과정에 집중하고 사역을 위한 훈련과 부분적인 참여 과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장치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생의 생활과 학업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 비용을 교단에서 계산하고 각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에게 지원하는 사례의 기준 또는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전도사 사례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적정 기준 제시가 주어지면 각 교회에서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준해서 실행하고, 교회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회와 교단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전도사의 학비와 생활에 필요로 하는 지원과 처우가 교단의 지침과 안내를 따라 실행하게 되면, 신학대학원생들은 지역과 교회 규모보다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 사역 참여를 위해서 교단과 신학대학원의 협력을 통해 이른바 ‘소명과 사역을 위한 지원센터’(center for vocation and ministry)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지원센터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사역을 위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을 안내, 연결, 또는 추천하는 것과 동시에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교단 내 교회들의 요청과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신학대학원생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역할 교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교회의 광고와 동료 또는 주변의 추천과 권유를 통해 사역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신학대학원생들은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부서와 사역의 내용에 대한 점검 또는 확인을 체계적으로 거치지 못한 채 교회를 찾아 지원한다. 반면에, 교회의 경우 사역자 수급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지원자에 대한 다면적 확인과 이해를 거치지 못한 채 사역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역을 지원하는 자와 사역을 초청하는 교회 모두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과정 없이 교회 교육부서 또는 필요한 다른 부서 사역을 진행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명과 사역을 위한 지원센터’ 신설과 운영은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위한 개별적인 특징과 강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사역자를 구하는 교회로부터 명확한 사역 내용을 확인해서 그에 부합한 사역자를 초청 또는 연결해서 사역자 수급의 지속적 안정과 효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단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여성 사역자들의 목회 사역 참여를 위한 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응답한 여원우 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6퍼센트에 해당한다. 실제로 신대원 교무지원처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은 매년 30여 명에서 70여 명에 이른다. 아래의 통계 도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의 수는 총 472명이다.

〈표 8〉 지난 10년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성 사역자들의 졸업생 수 통계

학년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입학(명)	67	50	58	42	84	59	42	52	55	56	41
졸업(명)		38	65	61	40	45	74	30	44	44	31

이와 더불어 고려할 것은 매년 입학하는 여원우 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전체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에서 여원우 들의 비율은 최소치로 계산해도 15퍼센트가 넘는다. 이와 더불어 위 도표에 포함되지 않은 2013년 이전의 졸업자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졸업할 여원우 들의 수를 고려할 때, 목회 사역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교단적 차원의 정책 마련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교단 내 교회들에서 교육부와 심방을 포함한 목양 부분에 여성 사역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단 내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또 수학한 여성 사역자들의 목회 사역 참여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IV. 나가는 글

지금까지 교회 사역 참여와 목회 사역과 관련한 기대 및 도전에 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의 현황과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교단의 정책 마련 과제를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90퍼센트 이상은 학업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교회 교육부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과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목회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오히려 담임 목회자의 인품과 교회 사역의 명확한 비전에 있다. 아울러, 제한된 여건에서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이 목회 사역을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주목하는 영역은 담임목사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과 상호 존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외적으로 많은 수의 목회자 후보생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목회 사역을 위한 인격 형성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합동 교단에 속한 교회 수는 대략 11,200여 교회로 파악된다.⁶⁾ 이 가운데 미(래)자립교회 곧 교회 규모가 작아서 교육전도사 또는 부목사 사역 없이 담임목사만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대략 5000여 교회로 추정한다.⁷⁾ 교회 수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대략 6000여 교회에서는 부목사 또는 교육전도사의 사역이 요구된다. 매년 정년을 맞이하는 목사들이 있고, 동시에 매년 비록 제한되거나 줄어들지만 여전히 목회자 후보생이 신학대학원에서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교단에서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숫자의 통계에 따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목회를 위한 신학을 수학하고 동시에 인품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중요하다. 신대원 재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회 사역을 위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담임 목회자의 인품과 설교 그리고 사역의 분명한 제시’(76.1%)다. 이 답변은 신학대학원생들이 향후 10년 15년 이후에 이러한 요구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단에서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수의 확보와 더불어 교회가 신대원 재학생들을 목회 사역의 피고용인 정도로 간주하는 풍토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6)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434>. (2024년 2월 23일 접속)

7)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434>. (2024년 2월 23일 접속)

저항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지원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각 지 교회에서 반영하고, 신학대학원 수학을 위한 위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 사역을 위해 적합한 사역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졸업생 전원이 성별을 넘어서서 목회 사역에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자료 1]



하나님의 종에 비추어 본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

(총신대 신대원 신약신학 강대훈 교수)



하나님의 종에 비추어 본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

강대훈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약신학)

1. 들어가며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신자들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목회자들도 감소하며, 이런 현상은 신학대학원의 지원자들도 감소하는 예로 나타난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감소하는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특정 교회들에서 사역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나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목회자 수급과 같은 한국교회의 고민을 위한 지혜를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진술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배경인 1세기 중반의 교회에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비하면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리 시대의 쟁점인 목회자 수급이나 정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침이나 원리는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사역자의 정체성과 역할이 의미하는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분량의 한계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사역자의 정체성을 ‘종’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사야 40-66장의 종과 종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사도들)을 지칭하는 ‘종’과 ‘종들’의 개념은 이사야 40-66장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 우리는 신약이 종의 개념을 위해 근거로 삼는 이사야 40-66장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 “종”과 그 종의 생애를 모방하는 “종들”의 도식은 이사야 40-55장과 56-66장에 단수형(종)와 복수형(종들)으로 나타난다.
- 종의 노래로 불리는 네 본문(42:1-9, 49:1-9, 50:4-9, 52:13-53:12)에는 단수 “종”이 등장한다(42:1, 19; 43:10; 44:1, 2, 21, 26; 45:4; 48:20; 49:3, 5, 6, 7; 50:10; 52:13; 53:11).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씨 또는 후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절정에 이른다(53:10). 이 후손은 56-66장에 “종들”로 표현된다.
- 복수형인 “종들”은 56-66장의 주요 주제다. ‘종들’은 단수형으로 표현되는 ‘종’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종’의 역할을 실천하고 확장한다. 이사야 40-66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에 부여된 역할을 행하고 신실한 종의 정체성과 역할은 ‘종들’(56-66장)로 불리는 후손들에게로 확장된다(예, 사 53:10). 예를 들어 ‘종’이 열방의 빛이었던 것처럼 ‘종들’도 열방의 빛이다.

3. 사도행전

3.1. 종에서 종들로

사도행전에 묘사되는 종의 정체성과 역할은 같은 저자의 저술인 누가복음의 기록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행전을 하나로 읽으면서 종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령과 종의 관계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사명에 적용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사명에 적용된다. 누가복음의 세례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열린 하늘을 통해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강림하셨다(눅 3:21-22).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예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시 2:7)과 하나님의 종(사 42:1)으로 밝힌다. 시편 2:7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므로 세례 장면은 왕의 대관식과 같았다. 예수는 이사야 42:1에 묘사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다.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1-2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세례를 받을 때 강림하셨다. 간단히 정리하면 성령께서 예수 위에 임하신 것(눅 3:22; 4:18; 61:1-2)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는 이사야 42, 61장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행전에서 부활의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행 1:8). “땅 끝까지”(ἕως ἑσχατῶν τῆς γῆς)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이사야 49:6에 근거한다(참고. 42:6).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도들은 종, 예수의 사역을 계승한다.

둘째, 누가복음은 이사야 42, 49장의 종을 예수와 연결하고 사도행전은 이 역할을 복음의 사역자들과 연결한다.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 예수는 “이방의 빛”으로 소개된다.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이다”라고 예언했다(눅 2:32). “이방의 빛”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사 42:6; 49:6). 사도행전에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빛이다(행 8:15; 13:46-47; 26:23; 28:28).

셋째, 제자들은 종이신 예수의 증인들이다. 누가복음 24:44-49에 따르면 예수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과 같이 죄가 없지만 고난 받는 종과 의인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47절). 회개(행 2:38; 3:19; 5:31; 8:22)와 죄 용서는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용서는 누가-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본질로서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4:18-19).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의 빛으로 수행할 사명이다(참고. 눅 2:32; 행 13:47). 제자들은 “이것들의 증인들”이다(눅 24:48). “이것들”은 예수의 사역과 수난과 부활, 제자들(또는 교회)을 통한 복음의 선포를 포함한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은 제자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다(1:8; 2:32; 3:15; 5:32; 10:39, 41; 13:31). 제자들의 힘으로는 증인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한다(49절; 11:1-13).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는 예수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로 땅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참고. 사 49).

3.2.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의 종

사도행전의 몇 본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된다(3:13, 26; 4:27, 30). 누가는 이사야서의 종(사 52:13; 53:11-12)에 근거해 예수의 고난(3:13; 4:27), 부활, 영광(3:13, 26)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3:13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사야 52:13-53:12에 묘사된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묘사다.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3:6)고 선언했다. 구걸하던 사람이 치유 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에 놀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과 요한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돌리면서

유대 백성이 자신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한다.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의 종은 죄인처럼 죽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회복하는 “생명의 주”이셨다. 하나님은 고난 받고 죽은 “그의 종 예수”(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Ἰησοῦν 톤 파이아 아우투 이에순)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 받은 예수를 “종”(파이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종을 영화롭게 하신 사실은 이사야가 묘사하는 고난의 종(53장)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52:13).

사도행전 8:32-35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종의 정체성을 예수로 가르친다.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7-8이었다. 내시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았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 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행 8:32-33). 이 본문은 이사야 53:7-8이다. 비록 내시가 이사야 53:7-8을 인용하더라도 그가 읽고 고민하던 본문은 52:13-52:12에 묘사된 종의 모습이었을 것이다.¹⁾ 종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았고 그의 고난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고 그들을 치유했다(사 53:4-6, 11-12). 하나님은 종을 높이셨고 종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52:13; 53:10). 고난 받았고 내시는 종이 누구이고 왜 고난 받고 죽어야 했는지 물었을 것이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행 8:35). 빌립은 예수의 고난에서 시작해 부활과 승천을 전했을 것이다. 빌립은 고난 받은 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 이미 예수는 마지막 만찬에서 이사야 53:12에 근거해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셨다(눅 22:37).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53:1-6). 많은 사람, 즉 열방을 위해 고난 받으셨다(53:7-9, 10-12).

3.3. 하나님의 종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선교를 위한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된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사야서의 종에 근거해 소개한다.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정체성을 연결한다.

3.4.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사야서 42, 49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한다(행 8:15; 26:23; 28:28).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42:6; 49:6)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49:6). “땅끝”은 이사야 49:6(행 13:47)에 근거하는 문구이며, 특정 지역보다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²⁾ 하나님의

1) Davi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295.

종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해 열방에 구원의 빛이 되는 사명을 성취하신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종의 사명(사 49:6)으로 설명한다. 바울의 소명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소명은 하나님의 종처럼 “땅끝까지”(ἕως ἑσχάτου τῆς γῆς)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행 13:47). 그들이 “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주장(13:47)은 갈라디아서 1:15-16에서 바울이 설명한 회심과 소명과 일치한다. 두 본문은 이사야 49장에 묘사된 “종”의 소명에 초점을 맞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믿는 내용(행 13:48)은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이 되는 종의 사명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사 42, 49).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명을 이사야 49장의 종과 동일시한다(행 13:46). 이사야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종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다음 이방인들에게 전했다(49:6; 참고. 42:6).³⁾ 사도행전 17장에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순서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다(참고. 행 18:4-7; 182 19:8-10; 183 22:17-21; 28:23-28).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사야서의 종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를 전한다(사 42:6; 49:6).

4. 바울 서신

4.1. 로마서

(1) 로마서 4:24-25

로마서 4:24-25은 예수를 이사야 53장의 종으로 묘사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 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죽이 된 것은 이사야 53:12(70인역)에 근거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은 이사야 53:11의 인유다. 이사야 53:11에서 고난의 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2) 로마서 8:32-35

로마서 8:32-35은 이사야 50, 53장의 종에 근거해 예수를 묘사한다. 로마서 8:32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53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언급한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은 이사야 53장에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 희생한 종의 운명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⁴⁾

2) 참고. 사 8:9; 14:22; 48:20; 49:6; 62:11; 렘 10:13; 28:16(35:16 70인역); 32:32(39:32 70인역); 38:8(45:8 70인역).

3) Holly Beers, *The Servant(s) in Luke-Acts*, 197.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사야 50: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듯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쏘이 그들을 먹으리라

로마서 8:33-34에서 바울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의 언어를 신자들에게 적용한다. 바울은 이사야 50:7-8(70인역)의 언어를 사용한다. 세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50:4-9은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종의 순종을 강조한다. 종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옳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사 50:8).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고난의 종처럼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받으셨고 그리스도처럼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이사야 50장의 종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옳다고 인정받게 될 종의 백성이다.

(3) 로마서 15: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5:21)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사 15:15)

로마서 15:21은 이사야 52:15의 인용이다. 이사야 52:15은 이사야서의 네 번째 “종” 본문에 해당한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이사야 52-53장에서 나라들이 듣고 깨닫게 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4) M. Seifrid, “Romans,” in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607-694 (634).

4.2.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3-4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진리가 성경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을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의 사명과 운명을 생각했을 것이다(사 52:13-53:12). 물론 바울은 고난받는 의인과 관련된 구약의 다른 본문도 고려했을 것이다(예, 시 22; 69). 이사야 53장의 종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다.

4.3. 고린도후서

(1)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14-6:10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이사야가 묘사하는 종의 역할을 맡았음을 주장한다.⁵⁾ 고린도후서 5:11-6:10에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사도로 소개한다(5:18).⁶⁾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5:14).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이다.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었으며, 그러므로 모두 죽은 것이다”(5:14). “모두를 위해”(ὐπὲρ πάντων)의 전치사 “위해”(ὕπερ)는 대신하는 의미다.⁷⁾ 바울은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는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두를 위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는” 자들이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15절).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5:15).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5:14)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다(5:17).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고 계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5:19).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그리스도를 대신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한다(20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과 화목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5) Mark Gignilliat, “A Servant Follower of the Servant: Paul’s Eschatological Reading of Isaiah 40-66 in 2 Corinthians 5:14-6:10,”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26 (2004): 98-125; idem, *Paul and Isaiah’s Servants: Paul’s Theological Reading of Isaiah 40-66 in 2 Corinthians 5:14-6:10*, LNTS 330 (New York: T&T Clark, 2007).

6)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야 했던 이유는 사도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며, 외부자들이 의문에 불을 지폈다(10-13장). 바울은 10-13장에서 외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1-7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한다. 외부자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기반으로 바울을 공격했을 것이다(참고 11:5, 22; 12:11). 바울은 외부자들을 “거짓 사도들”로 부르고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파한다고 평가한다(11:4). 바울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비해 바울의 매력과 능력이 형편없음을 주장했을 것이다. 반대자들과 달리 바울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고 많은 고난(11:23-29)과 치욕(11:32-33)을 겪은 약한 모습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을 주장하며, 이런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7) R. E. Davies, “Christ in Our Place—The Contribution of the Prepositions,” *TynBul* 21 (1970): 82; Murray J. Harris, *Prepositions and Theology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211-216.

8) Harris,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420-421.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결과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ὕπὲρ Χριστοῦ)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21절). 21절은 하나님이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고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다. 우리는 의로운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부여받는다.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의 종에 기초한다. 이사야 53장에서 종은 고난으로 죄를 용서하고(53:5) 많은 후손을 낳는다(53:10).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의 갱신이며, 하나님은 종의 사역을 통해 마음의 갱신을 주도하셨다.⁹⁾ 고린도후서 5:14-21에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킨 요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과 마음의 갱신을 위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셨다.¹⁰⁾

고린도후서 5:18-21	이사야 53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53:9(70인역)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53:6(70인역)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3:11(맛소라본문)

(2) 하나님의 종들인 바울과 동료들

바울은 ‘동역하다’(συνεργέω)라는 동사를 사용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로서 교인들에게 호소한다(6:1).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므로 합당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한다(6:2). 이 구절은 이사야 49:8의 인용이다. 이사야 49:8은 하나님의 종이 “이방의 빛”(49:6)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 49:8)

바울은 6:2에서 이사야 49:8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실현한 종으로 묘사하고 고린도후서 6:3-10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종들로 이해한다.¹¹⁾ 다시

9) Gignilliat, “A Servant Follower of the Servant,” 119.

10) Gignilliat, “A Servant Follower of the Servant,” 119; O. Hofius, “The Fourth Servant Song in the New Testament Letters,” in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eds.),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2004), 163-188 (183).

말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에서 종의 수고를 통해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하셨고(49:4, 8) 종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2에서 종이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구원의 날을 실현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취된 화목을 전하는 대사로 자신을 소개했고(5:20) “종”(δίακονος)으로 소개한다(6:4). 마크 캘리언트는 고린도후서 5:14-6:10에 나타난 종과 종들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¹²⁾

예수 그리스도 = 종 (고후 5:14-21)	바울과 동료들 = 종들 (고후 5:18-6:10)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었다.	종들은 종처럼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린다.
종/예수의 사역으로 구원과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했다.	종들은 새 창조를 전하고 확장하는 복음의 대사들이다.
하나님은 종/예수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과 화목을 시작하셨다.	
종/예수의 사역에는 죄 용서가 중심을 차지한다.	

또한 6:3-10에 묘사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종의 길을 가는 종들의 삶을 보여준다. 바울은 5:14-21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다(6:2).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들었다. 바울과 동료들은 이사야 56-66장의 “종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행한다. 이사야 40-66장에서 종들(56-66장)이 종(40-55장)의 정체성과 역할을 공유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 받고 죽은 종(고후 5:14-21)의 정체성과 역할을 공유한다. 바울이 사람들의 의를 위해 고난 받는 종의 역할을 맡고 확장한다.¹³⁾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면한 내용도 종의 고백이다(6:1; 사 49:4).¹⁴⁾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초를 많이 겪었음을 강조한다(6:3-10).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울은 수치와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기쁨과 부요함을 누렸다고 고백한다. 바울과 그의 동역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위한 사역을 수행하는 일꾼들이다(6:3-4). 그들은 이사야 49장에 묘사된 종의 사명을 성취하는 “종들”이다. “종들”은 화해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난 받는다(6:4-10). 종들의 고난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종을 따르는 과정에서 겪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종의 종들의 전형과 모범이다.

11) Gignilliat, “A Servant Follower of the Servant,” 98-99. 비일과 엡은 바울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종과 자신을 연결한다고 이해한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이사야의 종이 받은 역할을 성취한다고 이해했다. G. K. Beale,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of Reconciliation in 2 Corinthians 4-7 and Its Bearing on the Literary Problem of 2 Corinthians 6.14-7.1,” *NTS* 35 (1989): 561-564; William J. Webb, *Returning Home: New Covenant and Second Exodus as the Context for 2 Corinthians 6.14-7.1* (JSNTS 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12) Gignilliat, “A Servant Follower of the Servant,” 114-115.

13)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14) Beale,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of Reconciliation,” 561-564.

4.4. 갈라디아서

(1) 갈라디아서 1:4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묘사하기 위해 이사야 53장의 언어를 사용한다(특히 53:53:6, 10, 12).¹⁵⁾ “은혜와 평강”(1:3)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다.

(2) 갈라디아서 1:16-17, 24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갈 2:9)와 같은 권위가 바울에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이방인 선교를 위한 소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반응한다(1:11-2:21).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Χριστοῦ δοῦλος)으로 밝힌다(1:10).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종이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사야서의 종과 연결한다(사 49).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ἐκ κοιλίας μητρός μου καὶ καλέσας)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 1:15-16)

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ἐκ κοιλίας μητρός μου ἐκάλεσεν)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 49:1, 3, 6)

갈라디아서 1:15에 언급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와 동사 “부르셨다”(καλέσας)라는 표현은 이사야 49:1에 근거한다. 이사야 49장에서 종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내 속에 나타내셨다”(갈 1:16)는 하나님께서 “네 속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ἐν σοὶ δοξασθήσομαι)라고 언급한 이사야 49:3에

15) Matthew S. Harmon, *She Must and Shall Go Free: Paul's Isaianic Gospel in Galatians*, BZNW 168 (Berlin: de Gruyter, 2010), 56-66.

근거한다. 갈라디아서 1:16의 ‘나타나다’(ἀποκαλύπτω 아포칼뤼프토)와 이사야 49:3의 ‘영광을 나타내다’(δοξάσω 독사조)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현현을 묘사할 때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예, 사 24:21-23; 겔 28:22; 39:13; 학 1:8; 살후 1:10).¹⁶⁾ 사야 49:3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로 부르고 “네 속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셨다(70인역). “내 속에서 영광을 돌렸다”(1:24)와 평행 관계를 이룬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의 활동에 대한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고 “믿음을 전하는”(εὐαγγελίζεται τὴν πίστιν)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1:24). 1:16과 ‘영광을 나타내다’를 사용하는 1:24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 49장의 종과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 바울 통해 나타났다.¹⁷⁾ 갈라디아서 1:16의 “전하다”는 이사야 40-66장에 반복되는 “복음을 전하다”에 근거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소식을 복음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내용, 즉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소명은 이사야가 묘사하는 종의 핵심적인 사명에 근거한다(사 42:6, 8; 49:6; 52:5, 7; 66:19).¹⁸⁾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사명(이방인의 사도)을 하나님이 이사야 49장에서 그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에 근거해 주장한다.

(3) 갈라디아서 2:1-10

갈라디아서 2:1-10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한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2:2, 8-9)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방인 선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바울의 방문은 이사야 49장이 묘사하는 종의 사역에 근거한다(49:4).¹⁹⁾ 이사야서의 종은 열방을 위한 자신의 수고가 열매 없이 끝나지 않을지 염려했다. 이런 염려는 갈라디아서 4:11에도 반영된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본문(2:2, 8-9)은 1:16의 예처럼 이방인을 위한 종의 사역을 상기시킨다(49: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2:20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ὁ περὶ τῶν ἁμαρτιῶν ἡμῶν, 1:4) 죽은 분으로 묘사했고 여기서도 “나를 위해”(ὁ περὶ ἐμοῦ, 2:20)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다. 바울은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이사야 53장의 종과 동일시한다.

16) Matthew S. Harmon, *The Servant of the Lord and His Servant People: Tracing a Biblical Theme through the Canon* (London: Downers Grove, IL: Apollos: IVP Academic: An Imprint of InterVarsity Press, 2020), 181.

17) Harmon, *Servant of the Lord and His Servant People*, 181.

18) Harmon, *Servant of the Lord and His Servant People*, 181.

19) Harmon, *Servant of the Lord and His Servant People*, 181.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명은 자신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고난받은 종(사 53)과 열방의 빛(사 49)이었다. 이사야 49장에 묘사된 종처럼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른다.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빛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사 49, 53)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갈 6:14-15).

4.5. 골로새서

골로새서 1:24-29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복음의 종(“복음의 일꾼”, 개역개정)으로 소개한다(골 1:23). 바울은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겪었다(골 1:24). 바울은 자신의 생애와 사명이 이사야가 예고한 고난 받는 종의 생애와 사명을 성취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⁰⁾ 바울은 이사야서의 고난 받는 종처럼 고난 받음으로써 교회의 종(διάκονος)으로 활동한다(골 1:25). 이사야서의 종과 같은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교회의 종이 된다(골 1:25-28; 참고. 사 49:6). 이사야서의 종이 그의 사명, 즉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활동하기 위해 수고한 것처럼(κοπιᾶω, “수고하다”, 사 49:4)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수고한다(κοπιᾶω, 골 1:29).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종에게 “내 영광을 네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을 강조한다(골 1:29; 사 49:3; 갈 1:15-16, 24).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 회복의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다(1:24-29). 바울은 두 번째 종의 노래(49:1-13)에 묘사된 종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종을 위해 예언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사 52:13-53:12).²¹⁾

4.6. 빌립보서

빌립보서 2:5-11은 이사야 52:13-53:12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자기를 비웠다”(빌 2:7; 사 53:12). “종의 형체를 가졌다”(빌 2:7; 사 52:13-14; 53:11).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빌 2:7; 52:14; 53:2).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빌 2:8; 사 52:14; 53:2). “자기를 낮추셨다”(빌 2:8; 사 53:3-4, 7-8).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8; 사 53:7-8, 12). “십자가에 죽으셨다”(빌 2:8; 사 52:14; 53:3-8).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빌 2:9; 사 52:13; 53:12). 이사야 53장(70인역)과 빌립보서 2장은 “종”을 지칭하는 단어로 각각 파이스(παῖς)와 둘로스(δοῦλος)를 사용하는데,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된다.²²⁾

빌립보서 2:16(“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

20) Harmon, *Servant of the Lord and His Servant People*, 188.

21) J. White, “Paul Completes the Servant’s Sufferings (Colossians 1:24),” *JSP* 6 (2016): 181-198 (197).

22) Joachim Jeremias, “Παῖς Θεοῦ,” *TDNT* 5:711-12.

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에서 바울은 두 가지 점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하나님의 종을 떠오르게 한다. 첫째, 바울은 신자들의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원한다(빌 1:15-16; 사 49:4). 둘째, 바울은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빛이었던 것처럼(49:6)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들처럼”(ὡς φωστῆρες ἐν κόσμῳ) 되기를 권면한다(빌 2:15).

4.7.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24-26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를 반영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사용해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가르친다. 특히 바울은 이사야 42장의 종에게서 나타난 성품을 강조한다.

5. 목회자 정년과 종의 정체성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목회자 정년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간단하게 다루고자 한다. 목회자 정년 문제는 목회자의 수급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는 목회자의 수가 부족하므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경은 목회자 정년 문제를 위해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는가? 성경신학적인 접근으로는 이 쟁점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5.1. 정년 제도는 비성경적인가?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를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구약의 직분과 제도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은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직분은 성막과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 종교의 중심을 차지하던 시대에 있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심력 운동이 열방에 전파되는 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적용된 직분이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교회와 사역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적용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어떤 직분을 근거로 정년 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5.2. 정년 제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구약과 신약에서 오늘의 쟁점을 해결할 근거를 찾을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성경은 어록과 서사(내러티브)로 구성된다. 구약의 어록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율법, 규례, 명령 등으로 기록한 형태다. 신약의 어록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권면이나 명령으로 기록한다. 구약과 신약의 어록에 있는 가르침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원리이다. 이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중간 수칙이다. 이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와 같이 광범위한 원리보다는 구체적인 윤리를 제시하지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지침이다. 이것은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규례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지침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약에서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도록 권면하는 경우다(고전 11:2-16). 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포괄적이고 매우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과 대조된다.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중심을 둔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와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을 구성하는 또 다른 형태인 서사(내러티브)는 위의 세 가지 모습의 권면이나 명령을 제시하기보다는 서사를 통해 모범 또는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섬기는 종의 모범을 보여준다(요 13:15). 서사에 나타난 모범은 정년 제도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신학적 접근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다루고 중요성을 두는 중심 가치 또는 중심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리처드 헤이스는 『신약의 윤리적 비전』에서 신약의 윤리를 위한 기준으로 세 가지 이미지(십자가, 새 창조, 공동체)를 제시했다.²³⁾ 십자가, 새 창조, 공동체는 성경신학의 중심 주제로서 기독교의 윤리적 쟁점을 해결할 기준이 된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어록과 서사에 나타나는 모범이나 패러다임 중에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종’의 개념은 십자가, 새 창조,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범 또는 패러다임이다.

성경의 중심적인 가치나 주제를 종, 십자가, 새 창조, 공동체로 설정하고 성경의 원리와 수칙을 함께 고려해 보자.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정신에 맞는가? 새 창조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종의 정체성에 맞는가? 이런 가치를 고려해 공동체가 논의하는 것이 쟁점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유익보다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의도로 정년 문제를 접근한다면 종, 십자가, 새 창조의 가치와 멀다) 교회가 정년 제도를 위해 이런 가치를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외국 개혁 교단의 예도 참고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23) 리처드 헤이스, 유승원 옮김, 『신약의 윤리적 비전』 (IVP, 2002년).

6. 요약과 결론: 종의 정체성과 역할

우리는 이사야 40-66장의 종과 종들이라는 구도가 신약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종들은 종의 정체성과 역할에 참여한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종들'로서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사 53)으로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난의 종으로 자신을 이해했다. 종의 몸이 상한 것처럼(사 52:14) 바울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기 쉬운 정도의 처지에 있었다(갈 4:14). 종이 멸시받고 버림받은 것처럼(사 53:3) 바울은 비난과 배척을 받는 고난을 겪었다(고전 4:9-14; 고후 4:8-9; 6:4-10; 11:23-27). 종이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받은 것처럼(사 53:4)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겪었다(고후 12:7; 갈 4:13). 종이 채찍에 맞은 것처럼(사 53:5) 바울은 매를 맞는 벌을 받았다(고후 11:24-2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고난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롬 15:19)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고 고난받는 종의 임무를 수행했다. 종의 성품을 실천하는 담임 목회자의 모습은 부교역자들이 사역지를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종과 종들은 복음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다. 종이신 예수는 이방인의 빛이었다. 종들인 제자들과 사도들은 땅끝까지는 이방인의 빛들이었다. 목회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의 목회자를 위해서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개인들뿐 아니라 종들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의 관심과 결심도 중요하다.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자료 2]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목회자 교육의 중요성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김효남 교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목회자 교육의 중요성

김효남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1.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교회는 급격한 교인수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젊은층의 탈종교화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신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우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목회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감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각 교단마다 목회자 수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말로만의 걱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단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위가 소집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며 그에 따라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신학생을 많이 배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거나,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함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은 어쩌면 목회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교회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당장 부목사나 담임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자격있는 목회자의 숫자가 많았던 시기는 별로 없었다. 특히 참된 부흥의 시기일수록 오히려 참된 목회자의

숫자는 늘 부족했다. 역설적으로 교회의 타락이 극심하던 시절일수록 성직자는 넘쳐났다. 중세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 반대로 참된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와 17세기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면서도 결코 목회자의 수준을 타협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목회자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수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목회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참된 영적 부흥에는 수준높은 목회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목회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회자 교육을 강화하려고 했다. 반면에 교회의 타락과 침체의 시기에는 어김없이 세속적인 문화의 유입과 그에 따른 목회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무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해서 목회자의 양적 증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사의 궤적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목회자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추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약성경의 목회자 교육

1) 그리스도의 신학교: 사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분의 사역은 사도들을 통해 지속되었다. 이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에 주신 위대한 지상명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고,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생님께 삼 년간 배우며 목회자 후보생 과정을 거쳤던 얼마되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스승의 정체가 자신이 기대했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겨우 얼마 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적들에게 팔아버렸고, 후대의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는 자신에게 닥쳐올 피해가 두려워 세 번이나 스승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은 스승이 역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미칠 화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 앞에 일어난 기가막힌 사건 앞에서 의연하게 행동하기에는 부족할 뿐이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 년 동안 삶을 함께 하며 교육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해답을 찾기에 앞서 나타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한 사람의 사역자를 양육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서 삼 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들은 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목회자 후보생들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교육해야 할까?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후 한 시기에 보였던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은 대략 50일 정도 후인 오순절에는 극적으로 변화된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시기 사이에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승천을 보았으며, 오순절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제자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 년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기간은 무의미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삼 년 동안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셨고, 그 철저한 배움과 경험의 장작 위에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새롭게 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들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삼 년간의 교육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한 저장고가 된 것이다.

주님은 많은 제자들을 두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세상을 흔들고 바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열두 명이면 충분했다. 주님은 제자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관심은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본을 보여주어 그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목회자들의 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삼 년간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셨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그 크기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이다.

2) 초기 사역자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 외에 최초로 나타나는 목회자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다. 사도들과 신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 할 사도를 선정하고자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인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한 명을 뽑지 않았다. 베드로는 이 직책을 담당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행1:21-22).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말씀의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준비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일곱 명의 집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선정한다. 이 집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집사직과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던 빌립의 경우에서 보듯이 신약성경은 이들이 말씀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도와 구별되

고 또 현대의 목사직과도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구제 활동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의 사역도 일부 겸하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다. 신약성경에는 이들이 어떤 신학훈련이나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빌립과 더불어 집사로 선출되었던 스테반의 경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구약성경과 신학에 잘 훈련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테반의 설교는 구약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뿐만 아니라 구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초기의 탁월한 신학적 지식을 보여준다. 그는 분명히 훈련받은 준비된 사역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약시대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이러한 성숙한 지도자들의 존재는 신약교회가 이단이나 오류가 있는 신학에 경도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2세기 이후 초대교회의 목회자 교육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한 책의 신앙이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도들이 직접적인 말씀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으나 사도들이 죽은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수되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종교적 체험도 아니요 신비적 이적도 아니고,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쓴 성경이다. 기독교가 한 책의 신앙이었다는 말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초기부터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기는 문맹률이 지극히 높았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사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사학을 비롯해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 저자들의 저술에도 일정한 이해가 있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지적인 수준은 노예를 비롯한 하층민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대단히 뛰어난 것이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신학교(seminary)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지식과 교육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²⁾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은 교육은 전문적인 신학이나 경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이었지만, 이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경건의 진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였다.

1) William V. Harris, *Ancient Litera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272. 해리스는 라틴어 사용지역의 경우 문맹률이 90-95퍼센트에 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4-26. 곤잘레스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에 현재의 신학교와 유사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리학교가 있었지만, 이 학교들은 교리교육이 목적이 아닌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신앙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합당한 신학적 지식과 경건을 갖추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훈련받았을까?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당시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반 교육기관에서 기초적인 학문을 배운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개인적으로 탁월한 스승을 만나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자극을 받아 도움을 얻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과 연구나 탁월한 선생들의 글을 읽고 연구하면서 일정한 신학적 수준에 도달했다.³⁾ 하지만 이후 초대교회의 후기로 가면서 성직이 장로 혹은 사제(presbyter)와 감독 혹은 주교(bishop)로 분화되면서, 주로 주교들이 사제들을 멘토링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이후 교회가 확산되고 구약성경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보다는 이방 신자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대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회심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신자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취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대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후보자 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 기간도 적지 않아서 2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결국 신약성경 직후부터 이어진 수세기 동안의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학교육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무렇게나 대충 선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세상 교육기관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신학과 목회에 관한 훈련은 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회심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긴 시간동안 믿음에 대한 교육을 받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정착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들의 관점이 인간의 감정적인 체험이나 예식에 따른 종교적 경험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었음을 의미한다.

4. 중세의 목회자 교육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핍박 하에서 강력한 신앙적 동기에 의해서 지탱되었던 교회는 기독교의 종교로 급속하게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유입되었고 처음에는 위대한 교회의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시간이 점점 더 흐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이뤄지던 교리교육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원인 중 상당부분은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점점 더 눈에

3)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1-22. 이곳에서 곤잘레스는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들은 감독이 되기 전에 세상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상태였다. 암브로시우스의 경우는 세례도 받기 전에 감독이 되었으나 이후 심플리키아누스에게 신학에 대해서 잠시 배웠고, 신학에 전념하여 탁월한 감독이 되었다. 어거스틴 역시 정규신학을 받은 적은 없었고, 이미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상태에서 회심을 앞두고 카시키아룸에 머물며 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보이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더 이상 핍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결과 영적인 동기보다는 세상적인 동기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들이 많아졌고, 교회의 지도자조차도 그렇게 변해 갔으며, 이는 목회자의 학문적이고 영적인 지식과 자질들을 중시하던 기준에 대한 강조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초대교회 말에 이르러서는 신학적 훈련과 교육을 비롯한 목회적 준비가 일상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무리들을 위한 수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야만족이라고 불리던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럽을 정복하였을 때, 그들은 평소 동경하던 로마의 문화를 계승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대도시의 주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의 성직자들은 대부분 매우 무지한 상태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게르만족의 침입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침입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대 그리스도와 로마의 문헌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카시오도루스와 이시오도루스와 같은 이들을 통해 일부 고전지식이 전수되어 신학의 기초가 되는 문법, 천문학, 수사학의 3학(trivium)과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음악학의 4학(quadrivium)의 체계가 세워지는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다. 이처럼 게르만족의 침공은 기독교 신앙교육과 목회자 교육에 있어서 크게 후퇴를 가져왔다. 특별히 반계몽주의적 현상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더욱 더 신학교육과 목회자 자질의 향상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많은 성직자들이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한 교육이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는데, 주로 수도원 학교나 대성당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소수의 성직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였고, 대부분의 사제들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결국 교회 안에는 무지한 성직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⁴⁾

12세기 이후 유럽에 경제적, 학문적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수도원 중심의 신학교육은 점점 더 그 중심이 대성당 학교로 옮겨졌으며, 대성당 학교를 중심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몰리면서 대도시에 대학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3세기에 이르러서는 학문적인 의미에서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신학의 연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교사들과 보나벤투라를 위시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교사들은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 갔다. 물론 오늘날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지만, 목회자들의 교육과 학문적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해 진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이 모든 신학과 교육의 발전도 역시 일부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성직자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무지한 상태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중세 말에 이르렀을 때에는 더욱 심화되고 악화되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지나치게 사변화되었고, 그들만의 상아탑이 되어 대중과는 격리된 채 더욱 더 높아만 갔다. 학자들과 대부분의 성직자들 사이의 간격은 더 심각하게 괴리되었고, 그러한 성직자들에게서 일반성도들은 진리에

4)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75-76.

대한 작은 조각조각도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모든 진리는 일부 고위 성직자들과 학문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해 주는 역할을 했던 일부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중세는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에서 점점 더 암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어둠 속으로 빨려 가는 세상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가고 온갖 미신적인 현상과 신비적인 체험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간간히 말씀의 빛을 비추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빛은 너무나 미약했다. 아니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웠다. 교회와 교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작은 빛이었다.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비취야 했던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오히려 그 작은 빛들마저 가리고 어둠을 부채질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은 어둠 속에서 불꽃을 만들 작은 부싯돌조차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비참했다. 교회에 성직자는 넘쳐났으나, 복음은 사라졌고, 온 유럽이 교회였으나, 진정한 교회는 없었으며, 모든 백성들이 신자였으나 구원받은 백성은 소수였다.

5. 종교개혁 시기의 목회자 교육

1) 루터와 비텐베르크의 목회자 교육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목회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비텐베르크의 강단을 지켰다. 자신이 시작한 종교개혁의 싹이 반드시 계승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이 그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루터는 자신보다는 필립 멜랑흐톤이 목회자를 교육하는 기관을 더 잘 이끌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믿었다.

멜랑흐톤의 신학교육 개혁작업은 1502년 설립되고 루터가 가르쳐왔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과과정의 개혁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신학교육에 대한 멜랑흐톤의 생각은 1529년에 쓴 “신학생의 학업을 위한 계획”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중세 스콜라 교육의 강한 잔재였던 롬바르드의 “*Sententiae*”를 커리큘럼에서 제거하고, 모두 성경언어와 신구약 성경에 대한 과목으로 대체했다.⁵⁾ 루터와 멜랑흐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리고 로버트 콜브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비텐베르크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학자가 되어서 독일의 많은 대학의 교수로 진출했고, 비텐베르크의 목회중심적인 교육을 개신교 진영에 전파하는데 선봉장이 되었다.⁶⁾ 그 결과 목회자 교육에 대한 비텐베르크

5) Robert Kolb, “Pastoral Education of the Wittenberg Way” in *Church and School in Early Modern Protestantism: Studies in Honor of Richard A. Muller on the Matur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Leiden: Brill, 2013), 70..

6) Kolb, “Pastoral Education,” 71, 72.

대학의 비전은 루터파 신앙을 가르치는 곳마다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개혁파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 신학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비텐베르크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권위를 높이는 일에 힘썼다. 특히 성령을 성경의 저자로 인정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했다.⁷⁾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키트라이우스(Chytraeus)는 신학공부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도록 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때 문법과 구문에 집중하고, 또 내러티브와 그 부분의 의미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단어의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멜랑흐톤의 조언대로 라틴어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매일 두 장씩 읽었고, 2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 다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그들의 교리에 얼마나 적합한지 점검해야 했다. 사실 이러한 교리체계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야 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성경 언어를 더욱 같고 닦아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했다. 다음으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의 해석을 고대 교부들의 해석과 비교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루터와 멜랑흐톤의 성경해석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해석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오류를 막아야 했다. 키트라이우스는 교회의 역사를 읽는 것이 학생들의 신학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 및 사상가들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덧붙여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었다. 이 모든 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공부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사탄이 주는 공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⁸⁾ 결국 멜랑흐톤은 목회를 준비하는 자신의 제자들이 신학공부의 목적을 바로 알기를 바랐다. 바로 “복음의 핵심과 마찬가지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슬픔에 휩싸여 있는 양심에 평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었다.⁹⁾

루터로부터 시작된 독일의 종교개혁은 멜랑흐톤을 통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커리큘럼 조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적용을 강조함으로써, 로마교회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지도자들의 무능력과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종교개혁교회와 신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가지 교리를 개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리의 개혁과 더불어 이 교리가 신자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목회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비텐베르크의 개혁을 추진하며 목회자 교육에 정성을 들였고, 이는 결국 독일의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끼쳐서 독일 안에서 종교개혁

7) Nikolaus Selnecker, In *Genesis, primv librvm Moysi* (Leipzig: Rhamba, 1569), A1a-A4b; hanes Wgiand, In *XII. Prophetas minores Explication svccinctae* (Basel: Quecum, 1566), *2a-*7b.

8) Kolb, “Pastoral Education,” 76.

9) Kolb, “Pastoral Education,” 76.

신앙이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⁰⁾

2) 칼빈과 제네바의 목회자 교육

종교개혁가 중에서 목회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일 것이다. 칼빈이 등장하기 전에 제네바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았다. 중세 후기부터 교황과 지역의 유력자가 학교를 세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고등교육기관은 없었고, 16세기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변변찮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을 뿐이었다.¹¹⁾ 그래서 칼빈은 자신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제네바 시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생명력있고(vital) 효과있는(effective) 믿음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 제네바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¹²⁾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는 곧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칼빈은 중세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인 바로 지식이 결여된 신앙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이 지식이 결여된 맹목적 신앙(implicit faith)이라고 비판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중세 교회의 성도들은 어둠 속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점점 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이라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minds)에 계시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hearts)에 인 쳐진 지식이다”고 말했다.¹³⁾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했기에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그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러한 참된 지식을 통한 열매맺는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칼빈은 교육된 목회(educated ministry)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충분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고, 동시에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참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다. 성도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칼빈은 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요리문답을 만들었으며, 목회자들을 위하여 신학훈련 센터를 건립하여 개신교 신앙을 든든히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1차 제네바 사역 기간동안 칼빈은 모든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The Collège

10) Kolb, “Pastoral Education,” 79.

11) Standford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1 (Nov. 1955): 6.

12)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7.

13)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vols. trans. by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II, 2, 7.

14)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7.

de la Rive의 설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학교는 기존에 있던 유명무실한 공교육 기관의 역할을 대체했으며, 이후 더욱 더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계획하여 자신과 기욤 파렐이 함께 가르치려고 했다. 물론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 되지는 못했지만 칼빈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기관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배우는 예비기관이었다. 물론 미래의 목회자들도 당연히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것은 당연하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다가 추방되어서 마틴 부처가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을 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 그는 그곳에서 마틴 부처와 특히 그곳의 교육을 담당했던 스트룸(Sturm)을 통해서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많은 배움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제네바에 돌아왔을 때, 그는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교회법령집(The Ecclesiastical Ordinances)에서 직분자를 분류하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교사(Doctors)”를 “목사” 다음에 위치시켰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사역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준다.¹⁵⁾

칼빈이 시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려 했던 이유는 미래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관리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는 신학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올바른 목회자 양육에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한 국가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치에 반영하는 위정자들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계획은 당시 제네바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당장 시행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칼빈이 더욱 더 발전된 형태의 학교설립을 위해서 1557년에 스트라스부르크를 다시 방문하여 스트룸을 비롯한 그곳의 교육자들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학교 시스템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칼빈은 후원을 통해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이후 근처 도시의 도움을 받아 배자를 비롯한 교수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1559년 드디어 제네바 아카데미(Académie de Genève)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schola privata*와 *schola publica* 과정으로 나뉘었다. *schola privata*는 16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과정이었고, *schola publica*는 대학과정으로서 17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과정이었다. 예비 목회자를 위한 신학은 대학과정에서만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전의 과정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속했다. *schola privata*는 매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가을 추수기에 주어지는 3주를 제외하고는 쉬없이 연중 내내 진행되었다. 일과는 여름의 경우에는 새벽 6시에 시작하였고, 겨울에는 아침 7시에 시작하여

15) 칼빈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직분을 사증직제로 이해했다.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가 그것인데, 목사와 교사와 장로는 모두 다 장로의 직에 속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었다. 특히 교사의 직분은 주로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와 비슷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6)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먼저 인문학과 과학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러한 수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회를 황무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 그들을 목회와 통치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B. J. Kidd, *Documents Illustrativ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Oxford, 1911). 594.)

모두 오후 4시에 마쳤다. 이 수업시간 중간에는 아침식사를 위한 30분과 점심을 위한 1시간 30분 정도의 휴식시간만 있을 뿐이었다. 각 세션의 마지막에 학생들은 기도문과 십계명을 암송했으며,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훈계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schola privata*는 수준에 따라 7개의 학급으로 나뉘었다. 이들에게는 각 수준에 맞는 각각의 주제가 주어졌고,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그 주제에 대한 작문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작문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 이후 칼빈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을 시험감독으로 임명하여 이들이 작문시험을 볼 때 감독하게 했다. 이후 교장과 *schola publica*의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채점한 다음 각 학급에서 가장 잘한 두 명의 학생에게 진학할 수 있는 기회와 상을 수여했다. 대학과정인 *schola publica*는 그 과정이 *schola privata*와 사뭇 달랐다. 이들은 정해진 정규수업이 없이 매주 27시간의 공개강좌를 들어야 했다. 각 강좌는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아침과 저녁의 특정한 시간에 개설되었다. 이러한 대학과정은 당시 다른 대학의 과정에 주어진 규칙보다 좀 더 세심한 자기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규정들이었다. 칼빈이 이렇게 대학과정의 학생들에게 틀에 박히지 않은 이러한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허락한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훗날 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관리로서 교회와 국가를 섬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인식했고 이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교육과정은 매우 엄밀하고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칼빈이 단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그들이 참된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교회는 물론 사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은 비단 목회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한 지역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들 모두가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회원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기초 학문 교육(*schola privata*에서 이루어짐)과 인문학 교육 및 신학교육(*schola publica*에서 진행됨)을 받은 목사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이 생각했던 목회자의 교육수준은 이미 높아진 제네바 시민들의 교육수준보다 더 높아야 했으며, 이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이처럼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베자와 함께 정성스럽게 가꾸어갔고, 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여러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제네바는 물론이고 전 유럽에 개혁교회를 확산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바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러한 정신 위에 세워졌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중세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었고, 이들을 통해 교회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6.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 전통과 목회자 교육

1)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회자 교육

목회자의 자질과 교육에 관하여 칼빈의 사상을 잘 계승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역시 목회자의 수준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들의 목회자에 대한 인식은 16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이었던 두 표준문서, 곧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618년에 개최된 도르트회의의 개최과정을 통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

16세기 말에 이미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모든 목회자에게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했다. 그들이 목사로서 임직할 때 이 두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목사로 임직이 된 이후라도 이 두 문서의 내용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이들은 그 직을 박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두 표준문서의 내용 혹은 그 해석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후 알미니우스가 가졌던 견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두 표준문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정신인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표준문서를 개정하는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 중의 혼란기였으므로 이들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1618년 도르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¹⁷⁾

이와 같이 두 표준 문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는 결코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전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오히려 더욱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도르트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정죄되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낳았다. 표준문서에 대한 서명 요구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의 갈등은 단순한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과 결합되어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내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는 상태에서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총회는 일체의 양보없이 목사들에게 이 두 문서에 대하여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홍주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7) 홍주현, “16,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의 표준문서 관련 논란과 그 신학적 함의”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교회사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4. 3.), 146-147.

첫째, 개혁주의 목사의 정체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표준문서 서명 문제, 즉 개혁주의 목사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이 규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분열과 내전의 위기에 처하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반항론파가 항론파에 의해 추방당하고 네덜란드 곳곳에서 고난받는 십자가 교회(Church under the cross)가 생겨났을 때도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명은 하였지만 그 모든 의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색지대조차도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별도로 서약서까지 만들어서 표준문서와 함께 그것에도 서명하도록 하였다. 개혁주의 목사의 정체성 문제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여기서 홍주현은 네덜란드 교회가 목사의 정체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목사가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리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은 교회의 참된 존속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 다양한 이유로 신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목회자 수급에 적색불이 켜진 한국교회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부족한 목회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하여 정작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소홀하기 쉬운 상태다. 개교회 목사로서의 정체성이나 자격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목사로 임직하도록 허락하거나 그 기준을 낮추어 목회자의 숫자적인 부족현상을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교회는 교회의 성패가 목회자의 숫자가 아니라 신학적인 정체성과 경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도르트총회는 단순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서약해야 하는 서약서의 내용에 개혁파 목사가 믿어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했다. 목사들은 “(도르트신조에 결의된) 교리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실하게 변호하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것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저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서약해야 했다. 이 말은 이들이 교리와 진리에 대한 충분한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혁교회의 “교리들에 반하는 모든 오류를...반대하고, 반박하며, 그러한 오류를 회피하도록” 도와야 했다.¹⁹⁾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고, 교회의 진정한 안녕을 위해서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목사는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고, 다양한 오류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국가와 교회가 위기의 상황이었으며, 분열보다는 단결이 국가와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명백하게 보였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따라 목사의 수준을 타협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교회의 이러한 정신은 네덜란드가

18) 홍주현, “16,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의 표준문서 관련 논란과 그 신학적 함의,” 161.

19) Donald Sinnema, “The Origin of the Form of Subscription in the Dutch Reformed Tradition,” *CTJ* 42(2007): 256.

그 이후로도 세계 개혁신교회의 한 축으로 굳게 자리매김하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

2)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목회자 교육

목회자의 자격에 관한 비타협적인 자세는 비단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존 칼빈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고국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던 장로교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하던 때인 1560년 4월 27일, 낙스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귀족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설교가 그 지역(스코틀랜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말씀에 의지하여 성례와 다른 모든 것이 정당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언약했다.²⁰⁾ 며칠 후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책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그 책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the reformation of Religion)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전달하도록 명령했다.²¹⁾ 여기서 말하는 “책”은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첫 번째 헌법이며, 전 세계 장로교회 헌법의 모체가 되는 “제1치리서”였다. 이 치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 되는 귀족들의 언약과 목사들에 대한 명령 속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작부터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목사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선포되어야 했다. 또한 그들이 설명하는 종교개혁의 정당성이 여전히 로마 교회의 망령 속에 있는 무지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쉽게 말하면, 목사는 참된 교회와 신앙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자체의 정당성을 스코틀랜드 전역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로서 종교개혁 성패의 열쇠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가 처음부터 당면해야 했던 문제는 이 일을 수행할 목사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1560년 당시 스코틀랜드 전역에 총 1,100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목사는 십여 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목사를 양육하여 전국에 있는 교회의 강단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었다. 이 사실은 제1치리서를 쓰던 당시의 저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책을 기록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으려던 저자들은 목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까?

사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와 계획을 세우고 그 기초를 놓는 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 동안, 이들은 반복해서 목사 수급의 문제에 부딪혔다. 그만큼 목회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이 신생교회는 피지도 못하고 지고 말 것이다. 단순히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 땅의 무지한 성도들에게 전하여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목사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그럴싸한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20) D. Hay Fleming, *The Scottish Reformation* (Edinburgh, 1960), 93.

21)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ed. James Cameron (Edinburgh, 1960), 85.

도둑질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고,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이들은 먼저 모든 개교회에 자신들의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빈 강단을 채울 목회자를 속히 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의논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개혁이 시작된 교회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개교회가 강제적으로라도 강단을 채울 목회자를 구해야 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도 고려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교회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었다. 문제는 자격있는 목사 후보생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치리서의 작성자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제 막 개혁을 시작한 교회들이 목회자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적 관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자격없는 목회자라도 세워서 급한 불을 끌 것이냐를 사이에 두고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명제는 결코 목회자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비어있는 강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들이 다시 생각한 것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인데, 개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귀족 혹은 영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를 보호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지역에 자질이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라도 목회 사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 이들은 이 방법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그들은 임시방편을 생각해 냈다. 바로 지역교회 안에 평신도로서 경건하고 학식이 풍부한 자들을 택하여 독경사(Reader)로 삼아서 지역교회를 이끌며 성찬을 거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목사는 아니었다. 다만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사용했던 공동예배서를 읽으며 예배를 인도할 수는 있었을 뿐이었다. 이는 목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치리서의 저자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묘안이었다. 이들이 독경사를 선정한 것은 단순히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임시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격려하여 더 나아가서 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교회는 독경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목회자로서 설교와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독경사가 그 직무에 있는지 2년이 지나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을만한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유망한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무에서 해임되었다.²²⁾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수준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찰감독(Superintendents)이라는 직분을 만들었다. 이 직분이 어떤 의도록 만들어졌건 간에,²³⁾ 훗날 스코틀랜드에서 완성된 장로교 제도의 취지와는 사뭇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평등성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가치인데, 시찰감독이라는 직책은 감독교회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항존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1560년 당시 스코틀랜드가 처한 심각한 목회자 부족 현상 속에서 목회자가 없어 독경사가 담당하는 각 교회들을 돌보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해당 지역에 준비되고 수준이 있는 목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설교할

22)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11.

23) 이 직분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그 중에는 개혁파 감독(Reformed bishop), 돌아다니는 복음전도자(travelling evangelist), 혹은 오늘날 노회 안에 있는 시찰장과 비슷한 역할로서 추가 의무를 부여받은 지역교회 목사라는 견해가 가장 자주 나타난다.

수 있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치리서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스코틀랜드 전역을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구마다 기초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전과정을 마친 이들은 의무적으로 교회나 국가나 대학에서 섬기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지역의 기독교 영주에게 의무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언(prophersyng)”이라고 불렀던 것을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해당지역의 목사들과 독경사들이 매주 모여서 정해진 성경본문에 대한 자식의 연구와 해석을 자유롭게 나누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모든 설교자들과 교회가 “은혜와 은사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동에 대하여 판단하고 알기” 위함이었다.

비록 치리서의 저자들은 목회자 후보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했으나 결코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치리서에서 제시하는 자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공개된 회중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제시될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게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은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 다음에 그는...우리와 교황주의자들, 재세례파들, 아리우스주의자들과 같은 다른 기독교회의 대적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주요한 논쟁점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건전하며, 바른 교리로 설득할 수 있으며,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판명되면, 반드시 그가 섬겨야 하는 교회와 회중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양한 공적 설교를 행하는 가운데 칭의조항과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에 대한 것과 성례의 숫자와 효과와 사용에 대한 조항, 그리고 전체 신앙에 대한 조항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²⁴⁾

여기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최초의 헌법이 목회자들의 자질과 수준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처음 장로교회를 세우던 당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욱 더 시급하고, 심각하게 목회자가 부족했다. 장로교회를 세우는 이들에게 목회자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서 장로교회의 정당성이 전파되어야 하였기에 목회자의 부족은 이제 막 피어난 싹이 시들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제1치리서의 저자들은 목회자들의 수준을 낮춰서라도 각 교회에 목회자를 공급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다양한 방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을 볼 수 있다.

3) 미국교회사 속에서의 목회자 교육

이제 우리는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다. 특히 우리가 미국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24)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97-98.

장로교회가 목회자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국에 상륙한 다양한 유럽의 개신교 신앙이 얼마나 본래의 성경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신학적 준비 혹은 자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물론 방대하고 다양한 미국교회 모든 교단의 역사를 살필 수 없다. 여기서는 장로교회가 미국에 정착한 다른 교파와의 비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자질과 수준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다.

먼저 우리는 미국 장로교회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교회의 시작은 17세기 초반에 있었던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주와 더불어 시작한다. 물론 그 전에 일부 국교회 신자들이 미국에 정착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미국교회사의 의미있는 시작은 17세기 초에 있었던 청교도들의 이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정치적으로 볼 때 주로 회중파 청교도들이 지금의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이주해 왔던 것이고, 장로교회의 시작은 163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이주했던 장로파 청교도들과 1650년대에 이주를 시작했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출신의 장로교도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장로교도들은 1706년 필라델피아 노회(Presbytery)를 형성하여 본격적인 미국장로교회의 설립을 공포했다. 비록 장로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은 있었으나 1717년에 이르러서는 필라델피아에서 최초의 장로교대회(Synod)가 열렸다. 이후 장로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과 합병을 거듭하는 가운데 1789년 드디어 미국장로교회 총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18세기 들어서 미국은 서쪽으로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미국에서 자생하기도 했지만, 주로 유럽에서 유입되었다. 이 중에 침례교회와 감리교회가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하여 서부를 개척하기 시작하자, 미국 서부에는 점점 더 많은 목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교파는 서부로 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물론 장로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대열에 빠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장로교회가 서부에 생겨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많은 장로교회에 파송할만한 훈련된 목회자의 숫자가 적었다는데 있었다.

당시 미국장로교회는 다른 어떤 교파보다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미국장로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장로교회의 시작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었다. 첫 노회가 결성되고 4년 후인 1710년에 이미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데이비드 에반이라는 평신도가 체스터 카운티의 그레이트 밸리에 있는 웨일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일을 맡았다는 정보에 따라, 에반이 매우 잘못된 행동을 했으며 이렇게 목회사역을 침해함으로써 불규칙하게 행동했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이에 따라 그를 비난했다.²⁵⁾

25) *Records of the Presbyterian Church (1710)*, 17, cited in Maurice W. Armstrong, Lefferts A. Leotscher, and Charles A. Anderson, *The Presbyterian Enterprise: Sources of American Presbyterian Histo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9.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초의 미국 장로교회는 시작된지 얼마 안 되어 심각한 목회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기준을 낮춰서 에반스가 설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신 세 명의 목사와 함께 거주하며 신학을 1년간 공부한 후에 안수를 위한 점검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에반스는 결국 4년간이나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후, 다시 개인적으로 신학을 연구한 후 안수를 받고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²⁶⁾ 그가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따로 개인적으로 신학을 연구했던 이유는 당시 미국장로교회에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장로교 목사들은 뉴잉글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기초학문을 공부하고,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제식으로 신학과 목회를 배우거나 유럽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장로교회 안에 공식적인 신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윌리엄 테너트가 세운 사설 신학교인 통나무 신학교(log college)는 정도가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1차 대각성운동이 지나간 다음에는 신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제임스 프레이저(James W. Fraser)는 대각성 후에 장로교 안에서 일어난 신학교육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통나무 대학의 부상이고, 둘째는 대각성에 찬성하는 측에서 세운 대학과 반대하는 측에서 세운 대학의 설립이며, 마지막으로 대학교육 후의 도제방식의 확장이었다.²⁷⁾ 어느 것이든 신학교육에 대한 열의는 증가했고 장로교회 목사의 신학적 수준과 자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서부개척지에 목사의 수요가 증대되었을 때,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와는 달리 장로교회는 목회자들을 수요만큼 공급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두 교단은 목회자의 자질과 신학적 수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정규적인 대학과정이나 신학교육 과정이 전혀 없이도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장로교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선교적 필요에 따라 목회자의 수준을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선교지에서의 요청과 다른 교단들이 선교지에서 교세를 확장하는 상황 속에서 1785년 개척지의 켄터키 대회는 신학교육 과정을 2년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는 신학과정을 짧게 하여 더 많은 목사를 단기간에 생산해 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대회는 이 결정을 후회하고 다시 이듬해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무효화하고, 목사는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만이 신학교육을 통해서 안수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목회자의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선교하려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목사의 자질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였고, 이는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던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켄터키 대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 대회에 속한 컴버랜드 노회는 동의할 수 없었다. 컴버랜드 노회에는 1차 대각성 운동시 신앙고백의 내용을 강조하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던 장로교 내의 구파(Old Side)와 대척점에서 있던 신파(New Side)에 속하였고, 부흥운동과 인간의 감정과 정서적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던 목회자들이

26) Thomas Clinton Pears, Jr., "Colonial Education Among Presbyterians," *The Journal of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June & September, 1952): 115-26 & 165-74, 119f.

27) James W. Fraser, "The Great Awakening and New Patterns of Presbyterian The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 vol. 60, No. 3 (Fall, 1982), 191.

많이 있었다. 이들은 목회자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히 중요하므로 신학교육을 다시 강화했던 대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안수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임직하는 목사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이 성경에 일치한다고 여겨질 때에만 동의한다고 고백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캔터키 대회 내의 많은 구파 목사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들을 대회에서 축출하는 결의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결국 컴버랜드 노회 안에 있는 신파(New Side)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쫓겨난 이후 따로 컴버랜드 노회를 결성하여 독립하여 컴버랜드 대회를 거쳐 컴버랜드 장로교총회까지 형성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목회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수의 목회자를 공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교단들과 컴버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신학적인 교육과 수준을 중요하게 여겼던 미국장로교 총회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컴버랜드 장로교회는 그 이후 급격한 신학적 자유주의화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그 어떤 장로교단보다 가장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목회자의 교육과 수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교단 전체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로 인도한 것이다. 미국 감리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 듯이 신학적으로 상당부분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감리교회가 처음 생길 때 신학적 입장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국교회 안에서 당시 요청되던 기독교인의 사회봉사에 초점을 두고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웨슬리 사후 감리교회는 목회자들을 충분한 성경적, 교리적 바탕 위에서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주로 이웃섬김과 봉사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한 신자의 선한 삶에 중점을 두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신학적 수준을 유지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 결과 현재 감리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미국에서 주요한 개신교단이 되었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실패하여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침례교회 역시 시작부터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체계 위에서 시작되었던 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목회자의 교육과 신학적 수준을 유지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이들도 1,2차 대각성 시기와 서부 개척시기에 수많은 목사들을 특별한 신학훈련없이 배출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침례교회의 주류 신학은 알미니안주의적이며,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미국장로교회는 그 이후 현재까지 교단에 분열이 있었고, 또 주류 장로교단인 PCUSA는 신학적인 자유주의화의 길을 따라가진 했지만, 그래도 PCA를 비롯하여 여러 보수적인 장로교단이 건재하여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장로교회가 신학적 변질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오히려 그들이 20세기 이후 철저한 신학교육에서 멀어지면서 서구의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대화의 바람이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신학교육을 강화하여 수준높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교육하심으로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이후 사도들의 뒤를 잇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의 교육에 따라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추적해 왔다. 이러한 2,000년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일관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시기에는 반드시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목회자의 교육이 약화되고 목회자가 무지할수록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고목과 같이 쓰러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시작되어 대략 5세기까지 이어진 초대교회는 목회자의 교육과 수준은 물론이고 2년을 전후하여 교육을 받은 후 세례를 받고 입교했던 일반 성도들조차도 진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방면에서 훈련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삶에 자신을 드리기를 위해서 애썼다. 하지만 초대교회 후반으로 갈수록 영광의 종교로 변질되어 갔던 교회는 더 이상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수준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외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중세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자격미달인 성직자의 무지와 타락이 있었다. 게르만족의 침입이후 학문적인 관심의 쇠퇴와 자료의 부족은 성직자들의 무지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정비례해서 성직자들은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해갔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심각하여서 중세 후기에 이르면 상당수의 성직자들이 글을 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구경조차 해 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1,000년간의 암흑시기였다. 이는 세상의 문화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비참한 현상은 또 하나의 위대한 부흥의 시기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면서, 그 교회를 주도할 성직자 혹은 목회자의 개혁이었다. 루터와 칼빈은 목회자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특히 칼빈은 목회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과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학교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에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쳐, 대학에 들어오게 하여 국가의 통치자들과 교회의 목회자들을 길렀다. 칼빈은 목사의 수준이 교회의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제네바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목사회를 조직하여 끊임없이 목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더 나아가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찾아온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목회자들을 교육하여 다시 자신의 나라로 파송함으로써 개혁주의 부흥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장로교의 아버지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였다. 칼빈에게서 훈련을 받은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회를 조직하면서, 첫 번째 치리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목회자의 수준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무리 목회자의 숫자가 부족하고 시급하다고 하여도 낙스를 비롯한 초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결코 목회자의 수준을 낮추거나 아무나 목사로 세우지 않았다. 이는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부개척에 있어서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그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목사들을 보내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비록 다른 교단과의 숫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사의 자질과 수준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인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개혁교회 선조들, 그리고 장로교회 선조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비슷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목사의 숫자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조상들처럼, 미국 장로교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역시 부족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목회자의 자질에 무관심하거나 소홀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숫자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목회자의 수준에 관한 이러한 비타협적인 태도는 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오늘날 장로교회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큰 원동력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위험이 정말로 목회자의 숫자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인지, 아니면 목회자의 수준과 자질이 저하되어 나타난 부족현상이지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숫자가 강조되는 이 때에 이전보다 더욱 더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강력하게 물려받은 목회자 교육을 강조하여 목회자의 자질과 수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